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

“경남고 명성 지키자”...‘모교사랑기금’ 모금 본격화

모교 위상 추락, 후배 학업향상 돕지 않으면 ‘3류고 멍에’
덕형관 내 역사관·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추진

“교사들이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남고가 되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모교 경남고는 3류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모든 동문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명문일류고의 전통과 자부심을 날려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교를 도와주어야 한다.”<관련기사 3면>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취지문에서 밝힌 말이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3월 31일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경남고 재학생 학력향상을 위해 모금운동을 피력하고, 4억4천만원의 ‘마중물’ 쾌척을 약속했다.

이어 7월 4일 역시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김 총동창회장은 “마음으로부터 다가가고 싶은 총동창

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총동창회가 제 꿈이고 그 꿈을 위해 저부터 하나의 밑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번엔 동창회보 제436호에 모금운동의 취지문을 발표했다. 계획 발표에서 모금 시행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린 까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지정기부단체 승인 절차가 지연된 때문이다.

이번 모금운동은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뿐만 아니라, 덕형관 내 역사관 조성, 그리고 35회 졸업생인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모교사랑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이다. 총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금운동을 능가하는 벽찬 과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몰라보게 달라진 각종 동창회 조직의 역동성과 총동창회관 건

<모교사랑기금 계좌 안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101-2074-0344-01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재단)용마장학회 이용흠

립으로 촉발된 동문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려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는 이번 모금운동의 강력한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재경동창회 소속 동문들에게도 기부 참여의 문은 열어 놓고 있다. 총동창회관 건립 시 재정 동문 대부분이 기부를 외면했던 사실은 과거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겨졌다. 이제 미래의 경남중고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길에 동창의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는 총동창회보다 재경동창회의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역사관 건립과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은 어디 구분없이 전체 동문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경남중고 전체 동문의 영광으로 자리매김할 사업에 기수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

<기사 2면에 넘김>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2021년 7월31일 현재 (단위 : 만원)

개인			
6회	1	오 영 은	100
7회	1	김 삼 현	500
25회	1	박 중 찬	10,000
29회	3	김 대 옥	10,000 (약정액4억4천만원)
		이 문 열	200
		차 의 수	100
31회	1	김 중 규	31
32회	1	이 중 휘	1,000
33회	3	김 윤 성	50
		백 수 현	50
		최 웅 남	100
34회	2	이 진 호	500
		박 철 웅	550
37회	1	이 수 환	10
38회	1	박 이 현	100
39회	1	백 기 현	50
41회	2	김 정 태	410
		최 영 준	410
43회	1	김 민 석	10
47회	1	정 신	300
54회	1	김 영 빈	10
55회	1	이 욱 한	10
참여인원(명)	22	개인 합계	24,491

동기회

7회 동기회	300
45회 동기회	450
55회 동기회	55
동기회 합계	805

단체

강서지구동창회	100
경미회	160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
김해지역동창회	50
남부산지구동창회	100
덕형리그	30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
미술작가 작품 판매 수익 기부금 (30박홍식/38박규열/41갈현/41여근섭)	230
용건회	50
창원지역동창회	100
단체 합계	1,220
전체 합계	26,516



덕형관 보수정비(원형복원) 사업비 보완 긴급요청서 관련 회의가 지난 7월 22일 경남고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비 제대로 달라”

총동창회 이의제기...경남고, 문화재청에 보완 긴급요청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해 달라는 긴급요청문이 문화재청에 전달되었다. 경남고는 지난 7월 24일 부산서구청에 덕형관 보수정비(원형복원) 사업비 보완 긴급요청서를 발송하고, 이 요청서가 부산시청을 거쳐

문화재청으로 신속히 전해지도록 하였다. 이번 요청서는 총동창회와 산하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기초한 것이다.

<관련기사 상보 3면>

경남고는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사업

비 36억9,200만원의 덕형관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지난 1월 7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원형복원이 아니라 부분 보수정비 공사에 한정한 설계도 내용으로 설계용역업체에 사업 축소지시를 내렸다. 28억7,400만원이

줄어든 사업비 8억1,800만원이었다. 신청한 주요시설은 모두 제외하고, 부수시설만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 7월 21일 총동창회가 확인해 보니 6억원대로 더 쪼그라들었다.

총동창회는 36억원대의 사업비가 힘들다면, 내부시설 기능 현대화 부분을 제외하고 원형복원에 필수적인 사업비는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경남고가 사업비 20억 8,200만원 요청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도록 촉구했다.

총동창회 소식

집행위부회장단, ‘총동창회 기둥’ 역할

분기 모임 갖고 모교사랑기금 회칙 수정 등 논의

경남중고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분기별 정례모임이었다. 이날 참가자들의 화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이었다. 하반기에는 각종 모임과 행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충만했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집행위부회장단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총동창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많은 수의

동문들이 동창회에 마음이 끌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그런 기운을 북돋우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의 주요 행사 경과보고, 향후 주요행사 일정보고도 있었다. 제52회 기별야구대회는 코로나19 방역추이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는 10월 개최로 잠정 일정을 잡았다. 제8회 용마당구대회는 주관 측인 용마당구회에 일정을 일임했다. ‘2021년 용마의 밤’ 행사는

오는 12월 9일(목) 오후 7시 서면 롯데 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5회 동기기 졸업70주년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는 자체 추진이 다소 힘들어 ‘전통 계승’ 차원에서 총동창회 주도로 축하연 식사자리와 선물 증정, 모교 방문 기념촬영 행사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15회 동기기 행사는 하반기 개최가 예상되고 있다. 이어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현황이 보고됐다.

이날 주요 현안으로 ‘모교사랑기금’ 조성 계획안이 보고됐다. 모교사랑기금은 경남고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덕형관 내 모교 역사관 건립 등 3가지 사업 추진 재원 조달을 위한 것이다. 모금 실행은 기부금 영수증발급이 가능한 지정기부단체 지정이 완료 되는대로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고문이 모교 80년사편찬위원장으로 참석, 편찬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각 동기회사(史) 원고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총동창회 회칙 수정 및 보완 관련 토의에서 총동창회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취합, 시안을 작성해 조속한 시일 내 이사회 심의 절차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초 모교 개교80주년 기념 축하 광고 일간지 게재, 대리운전 ‘쿨’ 수익사업, 회원총명부 발간 관련 논의 등이 있었다. 경남고 재학생 진로지도 특강 동문강사 지원 요청 설명이 있었다.

이날 류명석(31회) 정책담당 집행위 부회장은 “총동창회의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살아 움직이는 동창회 모습을 밴드에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참석자(기수 순)=박종찬(25회) 김대옥 현응열(이상 29회) 류명석 오민일(31회) 김법영(33회) 정운성(35회) 박진용 최재혁(이상 36회) 오희진 정재형(38회) 박근태 윤원욱(39회) 전삼록(41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6월 10일 총동창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일반위부회장단, 진지한 ‘90분 토의’

모교 학력신장 방안 관련, 각종 제안 나와

총동창회 일반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6월 11일(금) 오후 총동창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궂은 날씨로 참석률이 저조했지만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로 회의시간이 1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마음이 끌리는 동창회론(論)’을 먼저 이야기한 뒤 “6월말이 되면 어느 정도 각종 모임이 치러지게 된다. 7월부터는 주요 동문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만남의 자리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의 주요 행사 경과보고와 향후 주요행사 일정보고, 그리고 공지사항 전달 등이 있었다(집행위부회장단 회의 내용 참조).

이 자리서 경남고 야구선수단의 황

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4강 진출을 축하했다. 결승 진출 시 총동창회 차원의 응원단 구성 문제가 거론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응원 인원 제한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는 용마골프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동창회는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납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와 관련, 일반위부회장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일부 기수에서 기별분담금을 ‘기별야구분담금’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별분담금은 총동창회에 납부하는 각 기수 분담금을 말한다.

이날 주요 현안으로 모교사랑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 동



총동창회 일반위부회장단 회의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회 차원의 재학생 대상 특강 실시, 장학금 수혜 폭 확대, 학교 홍보 계획 등이 제안됐다. 부산시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경남고 학사(學舍)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었다.

이 자리서 류장근(33회) 부회장은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교 발전에는 교사들의 애정과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의 주역인 교사들에 대한 동기유발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강 지원과 홍보 강화로 학교 위상 제고, 재학생 자부심 부여 등을 강조했다.

김태호(38회) 부회장은 “우수 중학생들의 모교 진학이 중요하다. 현 고교 진학 추천제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덧붙여 “경남중 졸업, 비경남고 출신의 동문들을 찾아서 동창회에 영입해 ‘맨파워’를 키우자”고 주장했다.

◇참석자(기수순)=김대옥 현응열(이상 29회) 류장근(33회) 김경곤 김태호(이상 38회) 백기현 윤원욱(39회) 박형규(43회) 권우일(45회).

〈기사 1면에서 받음〉

각 사업의 사업비는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에 5억원, 등록문화재로 지정 받은 덕형관 내 역사관 조성에 15억원 등으로 짜여 있다.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은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만, 역사관과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 사업 개시는 2023년 말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고는 학교 건물 4곳(본관 과학관 체육관 국산관) 리모델링 공사(부산시교육청 추진, 예산 130억원)를 2022년 11월경 시작한다. 공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학교 수업은 덕형관에서 펼친다는 계획이다. 덕형관에서의 수업 진행 이전에 덕형관 원형복원사업(문화재청 예산 지원)은 완료된다. 2022년 초에 공사 개시 예정이다.

이같이 경남고에서 전개되는 각종 시설 및 건축 공사가 완료되고,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전개될 경우 모교의 재도약은 그야말로 꿈의 실현으로 다가올 것이다. 내년이면 개교 80주년을 맞는다. 개교 100년을 향한 새 지평을 우리가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열어가야 한다. 가칭 ‘덕형역사관’ 내에 모금 참여자들의 이름을 새겨 동문역사에 길이 남길 계획이다.

한편 각종사업이 맞물려 있어 전체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길어져 모금운동도 장기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조성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장기전’으로 전개하되,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은 곧바로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모교사랑기금은 모교 백년대계를 위해 초석을 놓는 일이다. 모교의 재건과 재도약에 모두 함께 ‘사랑의 벽돌’을 쌓자.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이 동문께 드리는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 취지문

“모교 백년대계 초석 다지는 ‘사랑의 기부’ 동참을”

국내외 동문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무탈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제38대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는 시기에, 경남고를 떠나시는 정대호 교장선생님과 새로 부임하신 백영선 교장선생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면대화였지만 모교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모교역사가 무색하게 교사들이 부임을 달가워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남고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경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용마회보를 통해 영국의 명문교 이튼스쿨을 벤치마킹하자는 기사를 읽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최근 몇 년간 모교의 위상이 급전직하로 추락한 사실을 알고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듯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는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동문이 총액 100억원 이상의 모교발전기금(추정전대 총동창회 약 50억원, 재경동창회 약 70억원)을 가진 우리 동문회가 어떤 식으로 이자수의

을 운용하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여년 전 모교발전기금을 조성한 이후 지난 몇 년간 불문율로 총동창회는 경남중과 경남중-고교 야구부를 지원하고, 재경동창회는 경남고 기숙사 운영 및 학업증진을 위한 지원을 분담해서 책임져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동창회는 연간 약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반해 재경동창회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이자수의 대부분을 사용하다보니 한때 연간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했던 경남고 지원금이 약 3천만원대로 줄어들어 모교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교와 비슷한 발전기금액을 보유한 라이벌 부산고는 매년 초에 약 3억원을 학교에 지원해서 재학생과 교사들의 사기가 충천한데 반해, 우리는 약 3분의 1 금액인 1억원이 좀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한 예를 들자면 기숙사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비가 없어 기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

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교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교 재학생 학업향상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재경동창회의 기금운용과 무관하게 총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야구부지원 뿐만 아니라 모교의 학업증진 방안을 외부에 알리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 새로운 모교위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새로운 적극적인 모교지원방안 마련에 덧붙여 모교 선양을 위한 덕형관 내 역사관 조성 35회 졸업생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모교사랑기금’이라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모교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활성화 되고 있는 동문들의 기부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도입한 평생기부시스템에 따른 제1호 다 이아몬드기부자가 되는 영광과 함께 4억 4천만 원을 마중물로 기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모교는 3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동문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명문일류고의 전통과 자부심을 날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약 6만 8천명의 동문들이 십시일반의 정신을 가지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모교사랑기금’의 모금목표는 30억원으로 모교학업증진환경 조성에 10억원, 이태석 신부 추모 교내 공원 조성 5억원, 문화재로 지정 받은 원형교사 덕형관 내에 동문역사관 조성 15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덕형관 건물은 국가 예산으로 원형복원공사를 거쳐 부산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구역으로 1층에서 4층까지 역사관으로 꾸미고, 덕형관을 출입하는 구름다리 주변을 이태석 신부 기념공간으로 조성하여 기존 YS동상과 순국학도병 위령탑과 함께 시민들에게 모교의 빛나는 유산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금에 참여하는 모든 동문들의 이름을 가칭 ‘덕형역사관’ 내에 새겨 동문역사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모금 활동에도 불구하고 모금액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모교학업증진 환경조성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참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경남중고 제38대 총동창회장 29회 김대옥

“덕형관 원형복원 아닌 단순 보수 수준 안 돼”

문화재청 비합리적 지시 수용 불가... 반드시 개선 돼야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이 부분 보수정비 공사로 전락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이 신청 될 위기에서 다시 원형복원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경남고가 문화재청에 전달한 덕형관 보수정비(원형복원) 사업비 보완 긴급요청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총동창회의 이의제기를 경남고가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

우선 이번 일의 진행과정과 설계 내역을 살펴본다.

■**진행과정**=△덕형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2013.10) △문화재청 국고 보조금 교부대상 확정(2018) △원형고증 사전설계비(5천만원) 교부(2019.4) △구조정밀안전진단비(7천만원) 교부(2020.1)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 구성(2019.8) △설계용역 추진, 서울 다올건축사무소와 계약(2020.5)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 3차에 걸쳐 미비사



지난 7월 22일 덕형관 보수정비(원형복원) 사업비 보완 관련 회의에서 백영선 경남고 교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항 보완 요청(2020.7~11) △다올, 종합정비계획서 및 설계도 경남고에 납품(2020.11) △총동창회 공문으로 재보완 요청(2020.12)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사업비 36억 9,200만원(2020.12).

■**사업비 36억 9,200만원의 설계내역**=▲주요시설-①외부 마감재 복원 ②엘리베이터 설치 ③내부 바닥면 보수 ④전시관 조성 내부벽체 공사 ⑤옥상 지붕 발코니 방수공사 ⑥외부 원형난간 복원 ⑦창문복원 및 방화문 보완 ⑧위생 급배수 환기배관 공사 ▲부수시설-①바닥면 지형 조정, 배수로 정비 ②냉

난방 실외기 이동설치(발코니→외부화단) ③내외부 균열 보수(내부 몰탈 및 외부 기단) ④천정 석면텍스 전체공사 ⑤LED등 설치공사.

이상의 내용은 경남고가 문화재청에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비를 신청하기까지의 일정과 사업비 내역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를 완전 무시하다시피 한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올해 1월 7일 덕형관 현장실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 2월 18일 설계용역업체에 사업비를 대폭 축소할 설계도 제출을 지시했다. 설계용역업체는

지난 4월 12일 사업비 8억 1,800만원의 설계도를 신청했다. 무려 28억 7,400만원이 줄어든 내역이다. 문화재청은 경남고에서 올린 기존 설계내역 중 주요 시설 8개항 모두를 반영에서 제외시켰고, 5개 부수시설만 반영했다. 이는 원형복원과 건축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다.

당초 소요사업비 36억원대 설계는 65년 된 노후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복원시키고, 화재 취약 구조를 감안한 시설보완과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시민 전시관람 편의성을 고려한 내부시설 기능 현대화 등을 반영했다. 덕형관은 현재 일부 외벽 면과 돌출발코니 부분에서 시멘트 덩어리(몰탈)가 박락현상으로 추락사태가 발생, 안전사고에 대비해 임시그물망을 쳐놓은 상태이다.

총동창회와 경남고는 당초의 설계에 따른 사업비 36억 9,200만원에서 내부시설 기능 현대화 사업비 16억 1,000만원은 제외하더라도, 원형복원과 건축안전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사업비 20억 8,200만원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 4면에 넘김>

총동창회 소식

“100세 시대 맞은 ‘열정의 현역이라 불러다오’ 고문자문위원들



지난 7월 14일 총동창회 고문단 회의 참가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가 나아갈 큰 ‘흐름’ 짚어줘

고문단회의, 모금과 모교 미래 관련 방향 제시

총동창회 고문단 회의가 지난 7월 14일(수) 오후 서면 월강식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참석자가 적었다. 이날 고문단에서 송규정(16회) 상임고문과 이병찬(23회) 박종찬(25회) 고문이, 총동창회 집행부에서 김대옥 총동창회장장과 현응열 사무총장, 김중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좀 더 일찍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연된 점 이해 바란다”면서 “취임 후 꾸준히 많은 일을 치른 것 같다. 이제 모교 재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펼쳐 생각이다.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행사 경과보고, 향후 주요 행사 일정 소개가 있었다. 총동창회는 제23회 용마골프대회는 10월께 진행하며, 용마의 밤 행사는 예정대로 12월 9일(목) 오후 서면 롯데호텔에서 갖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5회 동기회 졸업 70주년 기념행사는 지난해 4회 동기회가 행사를 치렀으니 가능한 한 그 전통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서 모교사랑기금 캠페인 현황이 공개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화된 이 기금은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덕형관(원형복원 이후) 내 모교 역사관 건립에 사용 될 예정이다.

덕형관 원형복원과 관련, 문화재청

이 제시한 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원래의 목적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산 증액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모교 80사 편찬은 1,500~1,600P로 예상하며, 재경동창회와의 합동편찬 작업은 재경 측의 입장을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2022년도 총명부는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며, 광고 문의가 이전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는 동창회의 활성화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송 상임고문은 “동문이 서로의 기투합해서 동창회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 “이태석기념사업회로부터 지원받을 방안, 기념사업회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또 “열정적 사고를 하면 건강도 따라온다. 후배들이 인생 2모작 시대를 맞아 미리 미리 준비하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고문은 “동창회서 펼치는 모교 재학생 학력 증진 사업은 한계가 있다. ‘사생유명 부귀재천(死生有命 富貴在天)’(명심보감 순명편)이란 말도 있다. 인성교육을 잘해 교사들이 오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모금운동과 관련, “30억원 목표로 모금운동을 하되 이태석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5억원, 덕형관 내 역사관 건립에 15억원을 사용하고, 남은 10억원 원금을 쪼개서 10~20년 학력 신장에 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상경, 조력자를 찾아 나섰다. 이후 요로(要路)에서 총동창회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돕겠다는 사인을 보내왔다. 7월 15일 총동창회 내 관계자 모임, 21일 관계자

주요 현안에 색다른 접근…“오! 노숙함”

자문위원단, 모교사랑기금 모금 관련 조언 눈길

총동창회 자문위원단 회의가 지난 6월 29일(화) 오후 총동창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에 ‘열말’이 겹쳐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남진현(19회) 동문의 별세로 공석이던 자문위원장에 곽두희(24회) 동문이 선임됐다. 이는 지난 6월 10일의 집행위부장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본인의 공식적 수락 절차를 거친 것이다.

곽 선임 자문위원장은 “고(故) 남진현 선배님이 매우 열심히 활동하셨다. 자문위원장 선임이 기수를 건너뛰는 느낌이다. 자문위원단 회의는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닌 만큼 회의에는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참석자문위원들에 감사를 표하고, “7월 중순 고문단회의를 치르면 총동창회 전체 조직 두루두루 만남을 갖게 된다. 이후부터는 개별적인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올해 상반기 월별 각종 행사 경과보고와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2면 집행위

부회장단 회의내용 참조).

이날 주요의제로 모교사랑기금 조성 설명이 있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모교 재학생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이태석 신부 교내 기념공원 조성, 덕형관 내 역사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와 관련, 강부덕(20회) 위원은 “서울의 유수 학원 강사의 특강을 모교 재학생과 연결시킬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역사관 건립에 대해 장세훈(25회) 위원은 “‘큰 손’의 독지(篤志)를 끌어낼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강 위원은 재경동창회와의 관계 설정에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김 총동창회장에게 재경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동창회장은 하창우(27회) 재경동창회장과의 만남과 80년사 편찬 진행 과정을 전했다.

◇참석자=△자문위원-강부덕(20회) 곽두희 노상우(이상 24회) 장세훈(25회) △총동창회-김대옥 현응열(이상 29회) 윤원욱(39회).



지난 6월 29일 열린 총동창회 자문위원단 회의 참가자들.

‘경남중고인 상징’ 총동창회 배지 새로 제작

경남중고 졸업 동문 신분을 상징하는 총동창회 배지가 최근 디자인 수정 작업을 거쳐 새롭게 제작되어 나왔다. 박종찬(25회) 전임 총동창회장 시절 만들어 배포했던 기존의 것을 크기는 약간 축소하고, 금박과 청색 칠배지 2종류로 만들었다. 옷 색깔과 취향에 따라 사용이 가능케 했다. 총동창회



배지는 국회의원의 금배지처럼 권력과 특권의 상징이 아닌 오로지 경남중고인(人)의 자긍심의 표징이다. 총동창회는 배지를 각종 동창회 행사시나 동창회관 방문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기사 3면에서 받음>

지난 6월 29일 열린 총동창회 자문단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이 자리서 장세훈(25회) 자문위원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더라도 덕형관 원형복원 사업을 바로 잡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이 ‘길’

긴급회의, 22일 경남고 교장 면담 등 일련의 긴박한 ‘구수회의’가 있었다.

경남고가 올린 덕형관 보수정비(원형복원) 사업비 보완 긴급요청서에는 총 사업비가 20억8,200만원이다. 문화재청이 축소 지시한 8억 1,800만원(이 사업비도 깎아 실제로

는 6억원대로 축소)에서 원형복원 필수 시설에 소요되는 12억6,400만원을 추가한 내역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시설 중 엘리베이터 설치, 내부 바닥면 보수, 전시관 조성 내부벽체 공사, 위생 급배수 환기배관 공사 등을 제외한 것이다.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관, 합동 시설점검 '새 단장'

총동창회관, 합동 시설점검 '새 단장'

총동창회관이 개관 1주년에 즈음 새롭게 단장됐다. 용건회는 지난 6월 16일 오후 총동창회관 개관1주년 기념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용건회 회원 10명이 참가, 건물 전체 안팎을 대상으로 구조물과 시설물 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취합된 하자 보수 및 시설물 보강 대상 점검 결과는 총동창회에 전달과 동시에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총동창회관 합동 시설점검에서 건물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편이나 곳곳에서 누수와 악취 문제가 발견됐다. 용건회가 제출한 합동 시설점검 결과에 따르면, 5층을 제외한 전체 층에서 지척사항이 나왔다. 하자 보수는 곧바로 작업에 돌입했고, 추가 공사 건은 용마장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

용건회는 이날 합동 시설점검 실시 전 간단한 세리머니를 가졌다. 박성철(32회) 용건회 회장은 “총동창회관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용건회가 개관 1주년을 맞아 합동 시설점검을 갖게 돼 기쁘다. 향후에도 합동 시설점검이 지속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사업 당시 건축설계와 현장감리를 맡았던 이영학(26회·중부산지구동창회장) 용건회 고문은 “지난 1년 동안 조그만 손볼 것들은 해결을 해 왔다”면서 “완공 1년인 만큼 종합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다. 각 부문별 문제점들을 취합해 종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당시 참가한 협력사들의 상호 정보공유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수고한 용건회 동문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용건회 회원(기수순)은 이영학(26회·고문) 이원용(30회) 박성철(회장) 정현상(이상



용건회 회원들이 지난 6월 16일 총동창회관 합동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32회·수석부회장) 이원영(39회) 김인수(부회장) 이양걸 전삼록(이상 41회) 조창래(45회) 신현식(51회) 동문 등이다.

이번 총동창회관 합동 시설점검 결과 내용을 소개한다.

▲지하 1층=*천정 누수-1층 계단부분 실리콘 작업 후 경과를 보면서 천정부분 칼라시트로 작업 완료.

▲1층=*전면부 계단-우레탄 실리콘으로 작업 *간판 옆 구멍-그라인드 작업 후 돌가루와 본드로 작업 완료.

▲2층=*흡연실 전등 환풍기 스위치 교체 *스피커 수리 *천정 조명 분리 작업 *화장실 악취 제거-실리콘 작업.

▲3층=*우측 전체 창호 물막이 물구멍 하기 *악취 제거-실리콘 작업.

▲4층=*여자 화장실 환풍기 고장 *남자 화장실 악취 제거-실리콘 작업 *자동문 스위치 위치 변경.

▲5층=이상 없음

▲6층=*화장실 일반 수도꼭지 설치 *아트월 보드치노(대리석) 크릭 보수 요망 *펌프실 배수라인 확인-물 고임 현상.

▲옥외 앞=*조경수 1그루 교체.

▲옥외 뒤 옥상=*주계단 윗부분 크릭-전체 걷어내고 방수작업.

▲추가 공사 건=*건물 전체 외벽 실리콘 작업 요망-각층 창호 누수발생.

각종 동호회, 코로나 이후 중흥을 꿈꾼다

총동창회와 집행부 상견례

총동창회 동호회 집행부 상견례가 지난 6월 7일(월) 오후 총동창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총동창회 집행부와 각종 동호회 집행부 간 합동만남의 자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용마당구회, 용마바둑회, 용마코러스, 용마산악회 등 4개 동호회가 참석했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동호단체가 선후배간 정서적 단결에 기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동호회를 보다 활성화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용마당구회 노상우(24회) 회장은 제8회 용마당구대회 개최에 대해 “4개 기수씩 토너먼트형식의 대회도 고려 중이다. 집행부에서 더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용마산악회 서석권(35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산행이 어려웠다. 올해 들어서도 집행부만 분기별로 산행을 갖는 정도”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용마코러스 박근태(39회) 사무국장은

“오는 12월 7일 제5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단체연습이 힘들어 큰 부담”이라면서 “72회 제승완(동아대 재학생) 동문 등 후배들의 가입이 늘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최상규(31회) 단장은 “내외 활동에는 총동창회가 여력이 되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마바둑회 고승성(40회) 사무국장은 “현재 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코로나19로 각 기수 동기회 내 기존 바둑모임이 잘 안 되고 있다. 조속히 회장 선임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바둑모임을 재건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날 참석 각 동호회에 격려금 30만원씩을 전달했다.

◇참석자=△용마당구회-노상우(24회) 회장, 김옥권(25회) 경기이사, 류승민(34회) 사무국장 △용마바둑회-이관선(28회) 고문, 고승성(40회) 사무국장 △용마코러스-최상규(31회) 단장, 박근태(39회) 사무국장 △용마산악회-서석권(35회) 수석부회장, 김진영(37회) 사무국장 △총동창회-김대옥(29회) 회장,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총동창회 동호회 집행부 상견례 참가자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 집행부 간 만남의 행사 참가자들.

지역동창회 건재, “총동창회 힘 되겠다”

김해·통영·울산 대표, 총동창회 원정 합동회의

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 집행부 간 만남의 자리가 지난 6월 17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해, 통영, 울산 3곳에서 대표를 파견했다. 이날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지역동창회가 정기모임 취소 등 활동이 위축되자 총동창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각 지역에서 동창회 활동을 열심히 해줘 고맙다”면서 “현재 분위기가 괜찮다. 이를 북돋워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더욱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총동창회 현황을 보고하고 하반기 행사 개최 여부를 전망했다. 경남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했다.

총동창회는 이 자리서 지역동창회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와 모교사랑기금 모금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지역동창회 대표들은 자체 모임을 자주 갖는 등 활성화를 통해 총동창회에 힘이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총동창회 집행부의 지역동창회 밴드 가입을 통해 상호 소통을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페이지는 현재 동문의 재능기부로 새롭게 정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동창회는 각 지역동창회에 격려금 3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해동창회는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0만원을 전했다. 통영동창회는 멸치 1박스를 총동창회에 선물했다.

◇참석자=△김해지역동창회-차의수(29회) 고문, 박원곤(32회) 회장, 김기덕(37회) 사무국장 △통영지역동창회-김기산(33회) 사무국장 △울산지역동창회-박철중(36회) 사무국장 △총동창회-김대옥 회장, 현응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모교 애로 청취...“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

◇..... 총동창회는 최근 경남고와 경남중 모교의 현안과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청취하◇
 ◇..... 는 협의회를 각각 가졌다. 코로나19 상황하에서 힘겹게 학교 운영을 해오고◇
 ◇..... 있는 모교에 총동창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를 듣고 물었다.◇



총동창회 집행부가 지난 7월 6일 경남중을 방문, 김미정 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중, 소운동장 확보 공사 경비 요청
야구부 생활관 건립, 독지가 지원 기대

지난 7월 6일 오후 총동창회 집행부가 경남중을 방문, 김미정 교장을 만나 학교의 현안과 요청 사항 등을 청취했다. 총동창회에서 김대옥 총동창회장, 현웅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용마장학회에서 옥동훈(25회) 이사가 참석했다. 학교 측에선 김 교장 외 이규민 교감, 강은아 운영위원회 회장과 신혜성 운영위원 등이 배석했다.

이날 경남중은 학교 홍보용 영상자료를 먼저 총동창회 일행에게 보여주고 난 뒤 학교 지원 요청 사항을 설명했다.

이 영상자료는 학교 현황 및 실태, 주요 사업과 성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실태에서 학생 28%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으며, 학교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과 성과 편에는 △안전 통학로 조성 △무한상상실 개설 △공간 혁신 사업 8월 실시 △인조잔디구장 예산 확보 △총동창회 지원 사업-김영삼(3회) 전 대통령 흉상 설치, 강당 영상장비 설치, 몇몇 동기회 모교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야구부와 관련된 사안은 별도로 작성됐다. 안전망 설치, 총동창회 지원 탁구대 3조 설치(운동장 부족 대안), 교육청에 숙소 건립 지원 요청, 학부모

간식 제공 등이 담겼다.

이어 학교측의 현안 3가지 설명과 지원 요청이 있었다. 첫째, 통학로 확보 문제는 일부 성과는 거두었지만,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둘째, 야구부 생활관 건립 문제이다. 이 사안은 동문 독지가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소운동장 확보 문제이다. 교내 연못자리를 소운동장화하여 학생들의 에너지 분출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약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교육청 예산에 총동창회의 지원이 보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교장은 “부임 이후 공간혁신을 추진해왔는데, 소운동장 확보는 절실하다. 학생들이 밖에서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 야구부가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청에 공간혁신 예산 외의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그동안 학교 발전에 노력해 온 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교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 용마장학회 이사는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고려 중이다. 학교에서 계획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이날 학교 홍보용 ‘패션 마스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고, 상위권 학생 대상 특강비 지원 요청
정년퇴직자 예우, 전교생 좋은 책임기 책값도

지난 6월 28일 오후 총동창회 현웅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 사무국팀이 경남고를 방문했다. 회의실에서 백영선 교장의 학교 현황 설명과 요청 사항을 들었다. 조민형 교감, 김은주 행정실장이 배석했다.

이날 경남고가 밝힌 몇 가지 애로점과 지원 요청 사항을 순서대로 소개한다.

첫째, 동문 개별 기부 시 장학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말고 학생복지기금으로도 기부해 달라. 요즘은 정부의 학자금 지원으로 학비 조들리는 경우는 없다. 학생의 복지 향상에 비중을 두는 게 기부부의 효율성을 높인다. 장학금으로 기부되면 다른 곳으로 전용이 안 된다.

둘째, 재경동창회에서 예전에 매년 학년부장 등을 위해 보내오던 지원금(각자 연 300만원씩)이 중단됐는데 복구해 달라. 학생 학력신장에 학년부장의 역할이 크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셋째, 재경동창회에서 지원해오던 우수성적 신입생 10명 장학금 지급을 앞으로는 돈이 전달되는 대로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하겠다.

넷째, 학교에서 정년퇴직하는 교사들에게 총동창회 차원에서 예우해 달라. 예를 들어 10만~20만원 정도의 상품권과 감사패(총동창회장과 학교장 명의) 정도면 족하다. 향후 3년간 매년 1명씩 퇴직 예정이다.

다섯째, 대입시 수시 과정서 수능 최저등급 규정 통과를 위한 맞춤형 특강

실시에 따른 재정 지원 요청이다. 지난해 경우도 수능 최저등급 미달이 많아 탈락자가 많았다.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상위 30% 학생 대상 개별 맞춤지도를 계획 중이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여섯째, 방학기간 ‘좋은 책임기’를 위해 전교생에 책 사주기 기획을 생각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교사들의 요청이다. 책값 300만원이 필요하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 현 사무총장은 학교측 요청 등과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①동문 개별 기부 시 장학금과 복지기금 간의 균형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겠다. ②재경동창회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가 입장을 다시 전달하고, 여의치 않으면 총동창회가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③정년퇴직자 예우, 특강 실시, 책값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야구부 연습장 개보수 공사와 관련, 지난해 말 총동창회의 7천만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음이 드러났다. 학교측은 추가 공사비 3천만원의 미입금으로 공사 개시를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정상 공사비 전액 입금이 완료되어야 공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한다. 총동창회는 용마장학회에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현웅열(29회) 총동창회 사무총장(오른쪽)이 백영선 경남고 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경남고, 학교 4개 건물 리모델링한다
시교육청 130억 예산 배정...“본관·과학관에 집중”

지난 6월 28일에 있었던 총동창회와 경남고 간 협의회에서 백영선 교장은 모교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다. 경남고는 본관, 과학관, 체육관, 국산

관 등 4개 건물이 대상이다. 모교에 배정된 총예산은 130억원으로 전액 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공사 설계 전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 동창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총동창회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

이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입찰, 내년초 설계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사기간 중 수업은 덕형관에서 진행된다. 그때까지 덕형관 원형 복원공사는 마무리되어야 시간적으로 맞게 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인재 양성과 핵심역량 신장에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이 큰 구상의 일부로 학교시설도 혁신한다는 것이다. 학생 중심의 협동,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미래 혁신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목표이다.

백 교장은 “이번 사업에서 본관과 과학관 리모델링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춘추가 미수(米壽)라도 동문사랑 ‘덕목’은 더욱 빛나리

7회 동기회, 회비 잔고 300만원 총동창회에 기부 김진홍 배건식 하근수 동문, 총동창회관 방문 기탁

지난 6월 17일 오후 7회 동기생 3명이 총동창회관 5층 사무국을 찾아왔다. 김진홍(동기회장), 배건식, 하근수 동문이다.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고했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을 비롯, 모교 80년사 편집위원, 집행위부회장 몇몇 등 총동창회관에 머물던 후배 동문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7회 동문 일행은 사무국에 들어서며 “멋지게 조성된 총동창회관을 직접 와서 보니 기분이 너무 좋고 감회가 새롭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사무국 소파에 앉자 김 7회 동기회장이 “섬섬한 방문이다”라며 의외의 말했다.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다. 7회는 코로나 19로 모임을 한동안 갖지 못했는데 얼마 전 사무국장마저 급작스레 별세했다. 모임을 이어오던 동기들이 동기회 회무와 재정을 정리했다고 한다. 7회 동기는 재무 잔고를 털고 얼마를 더 보태 300만원을 맞췄다. 이를 총동창회에 기증하려고 이날 내방했던 것이다.

7회 동문들은 올해 춘추 미수(米壽)이다. ‘7회 동기회’란 이름을 삶의 한 조각으로 공유하고 있을 때 후배들을 위해 뭐라도 남기고 전해주고 싶었다. 그 ‘섬섬함’이 바로 ‘비움의 미학’이었다. 모교 사랑과 동문 간 우정을 간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때마침 동기생 김삼현 동문이 모교 80년사 편집위원들이 취재 차 방문한 자리에서 500만원을 선뜻 총동창회에 기부한 터라 7회로서

는 그 의미가 배가 되었다. 이 기부금도 이날 함께 증정식을 가졌다.

김 7회 동기회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 다음에 (동기들과) 의논해 찾아오겠다”며 “이래저래 쓰다 남은 돈이다. 너무 약소해서 미안스럽다”고 말했다. 7회 동문들은 기부금의 ‘부피’에 대해 못내 아쉬워했다. 그 ‘무게’와 ‘가치’가 얼마나 크고 빛을 발하는지를 모르고... “원래 7회가 희미하고 약하다”면서 스스로를 낮췄다. 그러면서 장관, 대사 출신도 있었다고 말한다. 고(故) 박영식 전 교육부장관(1995년)이 동기생이었다.

이야기는 학창시절로 돌아갔다. 7회 동문은 1947년 9월 경남중으로 입학하여 1953년 3월 경남고의 전신인 부산제

1고로 졸업했다. 그 사이 6·25동란을 겪었고, 1951년 학제 개편으로 경남중이 서중과 부산제1고로 분리되었다. 경남중 4학년이던 7회는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니 부산제1고 2학년이 된 것이다. 중학 졸업장은 없는 기수가 되었다. “전쟁 중 휴교했다가 개교하니 학생수가 많이 줄었다. 100명 정도는 흩어지고 없어 졸업장도 못 받았다.” 피로 물든 역사에 상처받은 기수였다.

어슴푸레한 기억의 보따리가 풀렸다. 당시엔 조(組)로 불렸던 반(班)은 6개였다. 재학 시에는 이영선 교장이었는데 졸업장엔 추월영 교장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한다. “당시 엄청난 혼란기였는데도 향학열이 높았다. 교장선생님들의 교육 열의는 정말 대단했다. 우리의 우리가 있게 했다”고 말한다.

안용백 교장선생님의 홍상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총동창회관 복도에 잘 안치돼 있다는 말에 “아주 잘 되었

다”며 경남중·고의 ‘명문 전통’의 초석을 다진 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학시절 경남고와 동아대 간의 ‘부지 싸움’은 치열했다고 한다. “우리 쪽에는 힘쓰는 ‘어깨’가 제법 있었다. 육탄전을 벌여 동아대 사람들을 제압했다. 그들을 뚱뚱에 빠뜨리기도 했다. 우리가 높은 데 있어서 밀어붙이기 좋았다”고 무용담을 털어놓았다.

“6·25동란 초창기에는 교사(校舍)를 군에 징발당해 돌맹이를 깔고 앉아 수업을 받았다. 이후 천막 수업을 할 수 있었다. 그때 피란민들도 많이 몰려왔다. 부상자들을 부산대학병원 전신인 시립병원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동원됐다. 한번은 부상자를 둘러업고 시립병원으로 가는 중 환자가 갑자기 죽어 늘어졌는데, 가서 보니 죽어 있어 놀라기도 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7회 동기는 졸업앨범이 없다고 한다. 그 사연도 애절하다. 당시 졸업앨범 제작을 위해 각자가 낸 앨범비를 동기생 모씨(이름은 비공개로 함)가 분실해버린 것이다. ‘의혹’은 가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구를 탓하기보다 무척 힘들었던 세상을 원망했는지 모른다. 그냥 졸업앨범조차 없는 기수로 남는 ‘흑역사’를 기록하면서.

김 7회 동기회장은 김삼현 동기생의 기부선행을 널리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여유 있는 친구들이 기부행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이다. 두드리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선배에게 모교 배지 달아 주기가 있었다.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인 류명석(31회) 정운성(35회) 박근태(39회) 동문이 7회 동문 선배 3분에게 금빛 배지를 각각 달아주었다. “내 죽을 때까지 이 배지를 보관하겠다” “국회의원 배지보다 더 값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마음의 짐을 비우려고 총동창회관을 찾아왔다가 ‘나는 경남중·고인(□)’을 증언하는 황금빛 배지를 가슴에 달고 그 빈 가슴에 후배들의 따뜻한 우정을 한껏 채운 7회 동문들이다.

일행은 5층 대회의실에 진열된 역대 총동창회장 사진과 모교 80년사 편찬사무실을 둘러보고 단체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무국 동문들의 안내로 총동창회관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일행은 총동창회가 준비한 동창회 기념품을 한 아름 안고 귀갓길에 올랐다. 언제라고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다시 찾을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다.

〈기사 8면에 넘김〉



7회 동기회가 총동창회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진홍(7회 동기회장), 김대욱 총동창회장, 하근수, 배건식 7회 동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모교와 동문 생각, 내 맘에 강물 되어...”

김삼현(7회) 동문, 총동창회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그동안 동창회에 기여도 못했다. 너무 작아서 송구하다.”

경남중고 7회 졸업생 김삼현 동문이 모교 80년사 편집위원 김기열(23회), 이요섭(27회) 두 동문에게 총동창회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한 말이다.

모교 80년사 두 편집위원은 지난 6월 15일 오후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사하역 인근의 행림한의원을 찾았다. 이날 두 편집위원의 방문은 80년사 자료 수집 및 구술 증언을 채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동문은 아들 김영태(42회) 동문

과 함께 3대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동문의 선친은 1957년 이곳에서 ‘대인한의원’을 차렸고, 이후 김 동문이 행림한의원으로 개명했다. 김 동문은 이제 아들 영태 동문에게 한의원 운영의 ‘큰 짐’을 맡기고, 자신은 오래전부터 찾아온 ‘단골환자’ 위주로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

두 편집위원은 이날 김 동문이 88세의 고령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현역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생생한 기억력으로 과거사를 전해줘 매우 놀랐다고



3대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삼현(7회) 동문(사진 왼쪽)이 아들 김영태(42회) 동문과 함께 자리했다.

전했다.

김 동문은 “이날까지 경남중고 출신이란 자부심으로 바르게 살아왔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지구 동창회

강서지구, 동문탐방 17탄째…높아가는 ‘화합과 우정의 탑’

강서지구동창회가 올해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코로나19 극복과 동문 화합을 위한 동문탐방 행사가 회를 거듭하면서 ‘화합과 우정의 탑’이 높아 가고 있다.

강서경찰서 부임 이윤식(44회) 동문
○…강서지구는 지난 5월 27일(목) 낮 강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부임해온 이윤식(44회) 동문을 동문탐방 제15탄으로 선정해 방문했다. 강서지구와는 낯설은 이 동문을 신입회원으로 철저히 챙기겠다는 포석이었다. 김택영(26회) 고문, 김종규(31회) 회장, 김성준(44회) 사무차장이 참가했다.

이 동문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23년째 경찰에 몸담아 왔다. 교통, 민원, 외사, 정보 등 다방면에 걸쳐 전문가 평을 듣고 있다. 부산시경 교통안전팀장

재직 시 잘 생기고 말 잘해 언론 인터뷰를 도맡아 하기도. 경찰답게 검도는 수준급이며 낚시와 난 키우기가 취미.

이날 오찬 경비는 김 고문이 찬조했다.

동서대 교수 재직 정상중(52회) 동문
○…강서지구는 지난 6월 17일(목) 오후 동문탐방 제16탄 행사로 동서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인 정상중(52회) 동문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김종규(31회) 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김성준(44회) 사무차장, 구민수(50회) 조직차장이 참가했다.

IT업계의 멀티플레이어인 정 동문은 학부 및 대학원 강의와 더불어 창업지원단 자문교수로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와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정 동문은 52회 동기회 사무국장, 강서지구 기획홍보 1차장이며, 야구·등산·골프 등 총

동창회 산하 직능단체에서도 활동 중인 팔방미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IT기업(주)아이피미라클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이다.

이날 정 동문은 벤처성공실화와 교수 임용, 동창회 활동 등을 털어놓았다. 정 동문은 동서대 졸업 후 부경대와 핀란드 오울루대에서 각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뒤풀이 저녁식사는 정 동문 외삼촌이 운영하는 중앙동 소재 ‘이정태 본참치’에서 가졌다.

박종찬(25회) 고문, 강서 명예고문 위촉
○…강서지구는 창립 2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일(목) 지구동창회 창립에 공이 지대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을 강서지구 명예고문으로 위촉하고, 동문탐방 제17탄을 시행했다. 박 고문의(주)

제이텍 본사(해운대 센텀시티 소재)에서 진행됐다. 김종규(31회) 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김재성(35회) 이사, 박진수(45회) 이사, 김성준(44회)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명예고문 위촉패를 받은 박 고문은 “아이고, 강서지구 무섭데이. 이거 사람 짱이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다 하노”라고 말했다.

이날 박 고문은 세계적인 선박인테리어 회사인(주)제이텍의 창립과 성장과정 그리고 기업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려주었다. 또 우리나라가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이 크루즈선의 모든 인테리어를 제이텍의 기술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다. 혼신을 바쳐 최선을 다한 총동창회장직에 대한 소회도 털어놓았다.

이날 박 고문은 인근의 김태용(54회) 동문이 운영하는 소고기집에서 뒤풀이 저녁식사를 찬조하고, 방문 기념선물까지 챙겨주었다.



①



②



③

강서지구동창회 동문탐방 ①제15탄 이윤식(44회) 동문(사진 오른쪽), ②제16탄 정상중(52회) 동문(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③제17탄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사진 왼쪽).

동문 아들 병 찾아주고 수술비 지원까지

○…강서지구동창회의 미담 한 가지. 강서리틀야구단의 이정우(51회) 감독의 아들로 강서리틀야구단의 유망주인 이태수 군이 지난 6월 말 강서지구 김택영(26회·한겨레치과의원 경영) 고문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 김 고문은 이 군의 편도가 비대한 것을 발견하고, 이 비인후과에서 편도비대 제거 수술을 받

도록 권유했다.

편도비대 증상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으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성장호르몬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이다. 수술비 40만~50만원.

이 군의 수술비를 김 고문 30만원, 김종규(31회) 회장 10만원, 이수관(38회) 사무국장 10만원 쾌척으로 마련, 후원했다. 강서지구의 의리 짱!



동문 아들 수술비를 전달하는 김종규(31회) 강서지구 회장(사진 왼쪽).

28회 5형제, 미니 동창회 열어

○…강서지구동창회에서 28회가 우수기수로 부각하고 있다. 기존 백영호, 예영일, 조광제 28회 삼총사에서 김상운, 배효진 동문이 합류, 일명 ‘28회 5형제’

가 되었다.

지난 7월 8일 강서지구 28회 미니동창회가 명지 국제신도시에서 열렸다. 5형제 중 예 동문이 불참한 가운데 28회 동기회장이자 모교80년사 편집위원인 박종기 동문이 참석해 ‘5형제 우정의 밤’이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 김종규

(31회) 강서지구 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이 축하사절로 참석했다. 2차 자리에 박진수(45회) 동문 합류.

이날 박종기 동문은 모교발전에 대해 열강을 하고, 강서지구발전기금을 쾌척했다. 백영호 고문이 이날 행사 경비 일체를 찬조했다.



애틀란타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 18일 동문 집들이 겸 월례회를 열었다.

애틀란타지역, 집들이 겸 월례회 가져

박경배·안근식 29회 동기생, 45년 만의 재회도

미국 애틀란타지역동창회는 지난 7월 18일(토) 김대형(44회) 동문 집들이 겸 월례회를 가졌다. 모두 8명이 참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안근식(29회) 권건오 정종우(이상 32회) 김용민(33회) 최호성(34회) 서동욱(37회) 김대형 김정년(44회) 동문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금) 워싱턴DC/볼티모어 지역동창회 사무국장인 박경배(29회) 동문이 애틀란타를 방문

했다. 동기생인 안근식 동문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연락이 닿았다. 이날 오후 6시 두 동문은 후배 몇 명과 함께 둘루스 소재 미송일식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박, 안 두 동문은 고교 졸업 후 45년 만의 재회라고 했다.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석자는 안근식 박경배 권건오 서동욱 김대형 김정년 동문이다.



강서지구 28회 미니 동기회 모습.

<기사 7면에서 받음>

이날 총동창회 참석자는 △사무국-김대욱 총동창회장 현운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모교80년

사 편집위원-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박종기(28회) △집행위부 회장-류명석(31회) 정운성(35회) 박근태(39회) 동문이다.

지역·지구 동창회

창원지역 “동창회·모교 발전 최선의 노력”

총동창회 집행부, 현지서 상견례…밴드 가입 권유

총동창회 집행부가 지난 7월 6일(화) 오후 창원시 상남동 한 음식점에서 창원 지역동창회 집행부와 상견례를 가졌다. 총동창회 집행부는 이날 장맛비를 뚫고 약속장소로 원정 방문을 감행, 창원지역

동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동기가 회장으로 있어 창원지역에 관심이 많다, 총동창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로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자”면서 “이제는 모교에 진 빚을 갚을 때이다. 그런 차원에서 총동창회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을 설명하고 창원지역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김정암(29회) 창원지역동창회장은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격려차 방문해줘 감사하다.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 자리서 창원지역 동문

들의 총동창회밴드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통해 총동창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조직 강화 격려금 50만원과 기념품 배지 30개를 전달했다.

김갑태(29회·창원 한솔병원장) 동문이 20만원, 특별참석 정재우(50회·(주)티비파워

테크 대표이사) 동문이 30만원을 찬조했다.

◇참석자=△총동창회-김대옥 총동창회장, 현응열 사무총장(이상 29회) 윤원옥(39회) 사무국장 △창원지역동창회-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오른쪽)이 김정암(29회) 창원지역동창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김정암(회장) 김갑태 박봉구(주)ATL 대표·이상 29회) 이환용 백호동(이상 32회) 조시형(34회·사무국장) 최용석 김성수(이상 40회) △특별참석-정재우(50회).

〈휴게실〉

Letum non omnia finit.
레툼논 옴니아 피니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 않는다.
Dum vita est, spes est.
뎀 비타 에스뜨, 스펬스 에스뜨,
살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위 사진은 지난 7월 25일 김해지역동창회 밴드에 차의수(29회) 동문이 올린 것이다. 한 동일 작가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다. 곰곰이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이다.



통영지역동창회가 코로나19로 그동안 열지 못했던 월례회를 지난 6월 21일 가졌다.

월례회 겸 신성찬 동문 칠순 축하연
통영지역동창회, 총동창회 협조 결의

통영지역동창회(회장 이영희·28회)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월례회를 지난 6월 21일 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의 ‘해운대 불고기’에서 가졌다. 이 자리서 총동창회 격려금 수령 보고가 있었다. 통영지역동창회는 총동창회의 각종 사업에 협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날 통영지역동창회는 칠순을

맞은 신성찬(25회) 동문에게 축하금을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신 동문은 차남 결혼식(7월 3일)을 앞두고 있어서 경사가 겹쳤다. 이날 뒤풀이 경비는 조영철(49회) 동문이 찬조했다.

◇참석자: 박일웅(13회) 신성찬(25회) 김광철 서상호(이상 27회) 이영희(28회) 배성만(33회) 주승진(36회) 조영철(49회).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25	박 종 찬	1억4000만원	1억원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3	29	김 대 옥	6900만원	1억원
4	30	최 우 철	1억7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2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4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7	24	박 흥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400만원	
9	26	박 상 호	5050만원	
10	30	윤 성 덕	6350만원	
11	37	허 부 남	5400만원	
12	38	권 두 성	72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0	28	백 영 호	320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2	30	김 현 태	3250만원	
13	31	박 중 호	3350만원	
14	31	홍 성 수	3320만원	
15	33	김 법 영	4250만원	
16	35	장 인 화	3300만원	
17	36	박 진 용	3150만원	
18	38	정 재 형	3050만원	
19	39	박 근 태	3140만원	
20	40	우 영 환	3500만원	
21	44	탁 정 환	3400만원	
22	47	정 신	3210만원	3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흥	150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군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40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2	이 중 회	710만원	10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4	33	최 웅 남	1300만원	500만원
25	34	박 철 웅	500만원	550만원
26	34	이 진 호	1250만원	50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2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7	김 삼 현		500만원
2	8	김 봉 길	500만원	
3	17	김 동 수	500만원	
4	17	윤 성 옥	500만원	
5	17	조 증 언	500만원	
6	19	김 봉 호	600만원	
7	19	장 흥 의	600만원	
8	20	김 태 영	500만원	
9	20	박 병 철	500만원	
10	23	이 상 수	500만원	
11	25	김 익 수	700만원	
12	25	박 세 철	53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2명	2021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3	25	손 기 천	550만원	
14	25	송 정 규	550만원	
15	25	이 명 철	710만원	
16	26	김 상 현	500만원	
17	26	박 재 옥	500만원	
18	26	박 효 대	500만원	
19	26	하 원 규	500만원	
20	27	김 태 우	550만원	
21	27	문 두 찬	600만원	
22	28	구 영 소	500만원	
23	28	이 원 철	900만원	
24	28	최 강 호	500만원	
25	29	이 석 조	600만원	
26	30	김 해 곤	700만원	
27	30	윤 인 태	610만원	
28	30	이 명 건	530만원	
29	30	이 학 수	700만원	
30	30	허정택(미)	615만원	
31	31	남 기 태	700만원	
32	31	류 명 석	660만원	
33	31	오 민 일	600만원	
34	31	이 병 태	600만원	
35	31	정 철 수	500만원	
36	34	이 재 완	550만원	
37	39	백 기 현	810만원	50만원
38	41	김 정 태	100만원	410만원
39	41	이 양 걸	800만원	
40	41	최영준	100만원	410만원
41	44	안병규	600만원	
42	64	표종빈	500만원	

동문기업 탐방

유리·금속창호 공사, 성실과 기술력으로 ‘내집’처럼 시공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⑥

(주)다원지엠 사장
신현식(51회) 동문

-우선 어떤 회사를 경영하시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는 ‘가온테크’와 ‘(주)다원지엠’ 2개 회사입니다. 2014년 2월에 창립한 가온테크는 금속창호공사업 전문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프레임 등 금속창호 가공 생산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뒤인 16년 5월에 창립한 (주)다원지엠은 창 유리의 절단, 가공과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 생림공장은 1천800여 평의 대지에 총 550평의 공장 2동을 가동하고 있고, 부산에도 작은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직원은 모두 25명이며 작년 매출은 두 회사 합쳐서 약 100억 원 정도입니다.

-신 사장님께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 사업을 경영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서 당시 김해의 꽤 규모 있는 유리 가공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직장생활 5년차 쯤 막 30대 초반이 됐을 때,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 안팎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도 눈치를 챘는지 “너는 언젠가는 독립할 것 같구나”며 이런저런 일을 광범위하게 맡기셨지요. 뭔가 연습을 시키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그 바람에 창업 시기가 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회사를 정리하던 과정에 얻었던 사업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들이 지금 사업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원지엠의 굵직한 사업 실적을 소개해 주시고, 동종업계에서의 위치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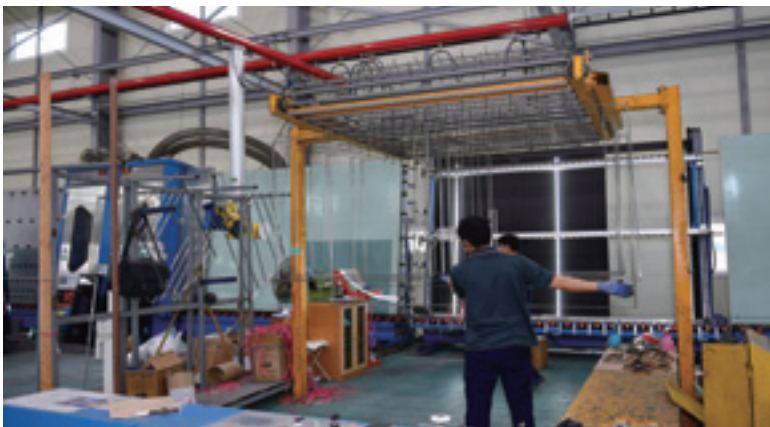
▲2014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산의 오피스텔 100세대를 수주했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비교적 큰 사업수행실적으로서, 장유 경동1차 1천 세대와 인천도화 1천 세대의 시공을 들 수 있고, 현재 연산동 재개발2구역 약 1천800세대

창(Window)을 만드는 신현식 대표는 하단에서 쪽 살면서 경남고를 51회로 졸업하고 사촌 형제들이 있는 제주로 건너가 제주대학 상업교육학을 공부한 부산 토박이 사업가이다. 첫 직장이 건물의 창호와 관련 있는 회사여서 이때 근무하면서 얻었던 노하우가 지금의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섬세하고 꼼꼼히 만들어지고 있는 유리 창 너머로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자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편집위원 박종기(28회)>



성실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 영업력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는 (주)다원지엠 사장 신현식(51회) 동문.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가격후려치기 들어와도 공사비 제값 고집...대외적 신뢰 쌓여 창업 전 직장 부도 정리하며 얻은 각종 분야 지식들 큰 자산



절단 유리판 세척, 접합 장비.

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범일동 두산 하버시티 2천200세대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원지엠의 유리공사 기술력은 우리나라 토목건축업계에서 아주 호평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금속창호공사는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서 안정적인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공사비를 과도하게 깎으려는 주문주가 있었는데 우리는 ‘안하면 안했지, 그 가격으로는 못하겠다’ 하고 계약을 포기하고 그냥 4개월을 놀았습니다. 약간 고생은 했지만 결국 우리 회사를 다시 찾더군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은 성실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대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믿고 맡겨 놓았고, 저

는 영업력의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업력만 보장된다면 동종업계의 톱클래스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데...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 새로이 채용한 경우보다 경력사원들이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꼼꼼하고 성실한 기술자들이 우리 회사의 성장을 믿고 찾아와서 합류했습니다. 회사 이사회의 이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기술자들이고, 모든 직원들이 내 회사를 내가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내 집처럼 시공하게 되고, 자연히 타 회사와 품질이 차별

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지난날 어렵고 좋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경우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가장 기뻐했던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업을 벌인 지 이제 5년 정도인데 요즘 사업 초기에 있었던 불안정한 요소들은 진정이 된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시는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연륜이 많이 짧아서 굴곡을 말씀드리긴 부끄럽습니다.

지난 시간 중에서는 아무래도 몸담고 있던 직장이 부도나서 저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을 때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부도난 회사를 완전히 수습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때 잘 참아냈던 것 같고, 또 느낀 바도 많았습니다.

한편 지금의 김해 생림공장으로 2년 전에 새로이 이전해서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공장 준공식을 가졌을 때가 가장 기쁘고 희망스러웠습니다. 임대 신세 지던 작업장에서 벗어나 비로소 내 회사가 생겼다는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까.

-직원의 노력과 성과는 회사의 매출과 고객만족으로 연결되는데 이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대다수 회사들은 사장 월급이 직원 월급에 비해 수배에서 수십배가 되죠? 저는 사장 월급을 직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이 월급을 400만 원 받는다면 제 봉급은 600만 원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창립할 때 저와 이사들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모으면서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서로 절약하고 참으면서 가자’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복지는 어김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가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현장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출퇴근과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차량 제공 등 이동수단에 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사 11면에 넘김>

▲ 인증서 현황

명 칭	취득일자	발 행 처
벤처기업확인서	2018. 4. 20.	한국기술보증기금
복층유리 제품인증서	2019. 4. 1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단체표준제품인증	2020. 5. 18.	한국판유리창호협회
복층유리 인증서	2021. 4. 11.	(주)KCC글라스

“법적·윤리적 책임 중요...고객과 직원의 말 경청”

〈기사 10면에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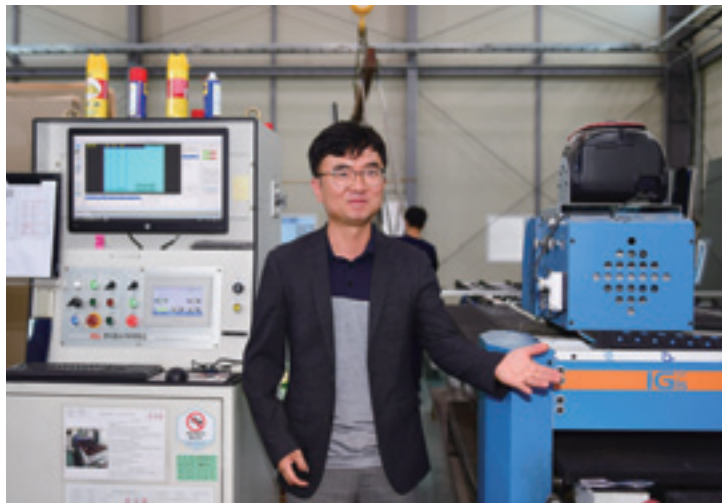
이후에 회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원지엠’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직은 사회공헌이라고 내세울 만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기독교인이기도 해서 회사를 창업하면서 개인적으로 ‘100곳의 교회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자’고 목표를 잡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8곳의 후원을 달성했고, 어린이 2명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경영해서 회사의 수익도 내고, 이와 함께 더 많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려 합니다.

-신 사장님은 건강을 어떤 활동으로 유지하시는지? 혹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새벽 4시 30분쯤 일어나서 5~7km 런닝을 합니다. 또 주말에는 꼭 집 뒤 승학산에 올라서 긴장도 풀고 마음도 새롭게 가다듬곤 합니다. 취미로는 바둑, 낚시와 당구를 들 수 있는데, 바둑을 두지 않은 지 오래 되었지만 아마 1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님께서 평



판유리 자동절단 장비를 설명하는 신현식 동문.

장히 고수이신데, 제가 3점 정도 놓으면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1년에 3~4회 바다로 출조하는 편이고, 당구는 500점을 쳤었는데 워낙 치지 않아서 요즘은 30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골프를 배우려고 준비 중인데 마음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군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후배들에게 경영자로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경제, 법, 윤리, 자선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명한 회계와 성실한 세금 납부와 같은 법적 책임은

물론, 공사 전후의 무사고 무재해, 환경보전,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언제 어떤 순간에도 경영자는 정직하고 기업은 바른길을 걸어야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주택이나 건물의 창(Window)을 만들고 설치합니다. 다양한 원자재를 써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해서 빼버리거나 대충 조립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정성들여 만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죠. 빗물이 새거나 소음이 유입되거나 창틀이 벌어지거나 문이 꼭 닫히지 않아서 찬바람이 들어오거나 등등.

후배들에게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무게를 둡니다. 경영에 있어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말(언어)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 오해와 번거로움을 유발해서 일을 그르치기 보다는 고객이 나 직원의 말에 귀를 크게 하여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해서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 사장님은 경남중고 동문으로서 후배의 육성에 마음을 쏟고 계실 것입니다.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신지, 후배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20대 때 바둑을 통해서 만났던 선배님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널 챙겨주고 사주고 얘기해주는 것은 니가 훗날 후배에게 전해줘야 한다.’ 김대욱 회장님, 박종찬 고문님의 동창회와 모교를 생각하는 마음 잘 전달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후배는 다음 후배에게...

제가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한 명이 된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경영하고 많이 벌어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우리 총동창회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10월 18일(월) ‘해운대비치’에서 개최



45회 동기회가 총동창회 발전기금 450만원을 기부했다.

45회동기회, 총동창회 발전기금 전달

45회 동기회(회장 김상수)가 총동창회 발전기금 45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7월 6일 오전 45회 동기회 조태성(주)선일물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과 구자삼(주)아이원 대표이사) 권우일(주)대경커뮤니케이션 대표) 동문은 총동창회 사무국을 방문,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45회 김 회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자리서 김 총동창회장은 45회의 모교와 동문 사랑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올해 모교 졸업 30주년인 45회는 오는 11월 13일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45회 동기회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 2명에게 9년째 장학금을 지원해 오는 등 선행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고·부산고 미술인 연합전시’에 참가한 화가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내놓았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화가 동문 연합전시회 수익금 일부 기부 230만원 총동창회 전달

지난 5월 한달간 해운대구 영무파라드호텔 3층 더코르소 갤러리에서 열렸던 ‘경남고·부산고 미술인 연합전시’에서 거둔 수익금 중 일부가 총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기부됐다. 지난 7월 8일 오전 갤러리 장선현 대표와 호텔 관계자, 그리고 참여 작가인 여근섭(41회) 동문은 총동창회 사무국을 방문, 기부금 230만원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에게 전달했다.

기부금 조성에 기여한 작가는 박홍식(30회) 박규열(38회) 길현(41회) 동문과 여동문이다. 여기에는 박종찬(25회) 고문의 후배 사랑이 큰 힘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작가대표로 참석한 여동문은 “모교를 빛내는 예술가로서 노력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일행에게 회관 내 식당 우미옥에서 오찬을 대접했다.

출판 소식

은퇴 4년여 만에 소설집 두 권 출판 “브라보! 새 인생”

허문준(22회) 동문, ‘무지개가…’와 ‘두 줄기의 강’ 펴내
이공학도였지만 집중적 독서로 잠재된 글쓰기 재능 폭발

조물주는 인간에게 한 가지씩의 재능을 부여했다는 말이 있다. 그 재능을 발굴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냥 묵혀버리느냐는 인간 자신의 몫이라고 한다. 혹자는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말한다. 최근 들어 젊은 나이에 재능을 찾아내 스타 급에 오른 이들이 경제계, 연예계 등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인생 후반부에 ‘삶의 정수’를 담아낸 역작으로 자신의 재능을 조명 받는 이도 있다. 이들은 대개 오랜 세월 자신의 재능을 갈고닦아 왔다.

허문준(22회) 동문의 사례는 후자에 속한다. 고회를 훌쩍 넘긴 허 동문은 지난 6월 2권의 소설집을 차례로 출판(복합)했다. 자전소설 ‘무지개가 있는 풍경’과 장편소설 ‘두 줄기의 강’이다. 문학적 열정과 창의적인 글쓰기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허 동문은 경남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이공학도이다. 한화그룹에서 23년간 근무하고 개인사업까지 펼쳤다가 지난 2016년 말 은퇴하고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은퇴 후 4년여 만에 소설집 두 권을 출판했다. 오래전부터 문학에 대한 강렬한 동경(憧憬), 글쓰기 재능, 그리고 집념이 함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동문 카톡방에서 연재 “갈채”

허 동문은 두 소설을 출판 이전에 일부 동문들에게 선을 보였다. 박종구(18회) 동문이 방장으로 활약 중인 문화예술과 인문사회학적 향기가 그득한 동문 카톡방에서 두 소설을 인기리에 연재했다. ‘무지개가 있는 풍경’은 얼마 전 막을 내렸고, ‘두 줄기의 강’은 몇 해 전 종료됐다. 소설 작가로서 입문하기 위해 동문들의 검증부터 받아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반응이 매우 좋았다. 동문들의 박수와 찬사, 격려에 보답한 출판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허 동문은 두 소설 외에도 이 카톡방에서 ‘명작 속의 명문’ ‘우리말’ 시리즈를 연재했다. 허 동문의 글쓰기 작업 내공을 말해주고 있다. ‘명작 속 명문’은 허 동문이 책을 읽다 밑줄 긋고 다시 보고 싶은 글들의 모음이다. 느낌도 달았다. 허 동문은 “글 속에 작가의 인생을 관통하는 통찰에 숨털이 일어설 때가 있다. 때로는 오직 하나의 말, 전무후무한 묘사로 정신을 혼미하게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성과 빛나는



허문준(22회) 동문이 최근 출간한 소설집 표지. 자전소설 ‘무지개가 있는 풍경’(왼쪽)과 장편소설 ‘두 줄기의 강’이다.

영감의 영역이다. ‘우리말’ 시리즈는 허 동문이 독서를 하면서 그러모은 낱말 중에서 우리말 어휘를 추린 내용이다. 허 동문은 “아름다운 우리말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 씁니다”고 했다. 허 동문의 작가적 역량이 오랜 시간 동안 익어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허 동문(이하 작가)의 역작 ‘두 줄기의 강’과 ‘무지개가 있는 풍경’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혼녀·제비족의 간절한 사랑

○…‘두 줄기의 강’은 다 큰 딸(14~15세)을 가진 34세의 이혼녀와 24세의 잘 생긴 춤꾼 청년(제비족)이 운명처럼 만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는 이야기이다. 허 작가는 소설 ‘작가의 말’에서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허들을 어떻게 뛰어넘는가를 들여다보았다”고 했다.

70년대 말 한국의 정세가 어수선했던 시기가 시대적 첫 배경이다. 산업화로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구가하였지만 윤리와 도덕, 그 가치를 잘 모른 채 이어온 전통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이기도 했다.

소설 제목 ‘두 줄기의 강’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수하는 아우라지의 절경에 대한 표현이다. ‘두 줄기의 강’은 아무런 저항도 표정도 없이 운명처럼 만나서 한 몸이 되어 흘렀다. 그것은 조물주의 혼신의 작용인 듯했다’고 썼다. 두 남녀의 신묘한 만남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1960년대 영화 ‘페드라(Phaedra)’를 이야기 속에 삽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어도 좋아’란 제목으로 상영된 이 영화는 아버지의 새 아내(페드라)와 사랑에 빠진 아들의 비극적 죽음이 스토리이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그 아들은 영화 끝 장면에서 ‘페드라~’를 절규하며 자동차사고로 죽는다. 소설 속에서 이혼녀는 자신이 ‘페드라’ 같은 사랑에 빠질 것 같다고 상상한다. 그것은 파국에 대한 암시였다.

소설에서 두 주인공은 운명적으로 만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사시킨다. 작가는 두 사람의 만남에서 영원한 이별(제비족의 죽음)까지 시간을 15년만 할애했다. 가시밭길의 사랑을 거쳐 도달한 ‘행복 시간’은 잠시 뿐이었다.

조물주가 인간의 사랑에도 개입,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허용했을 땐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소설의 재미일 것이다.

어릴 적 기억의 파노라마

○…‘무지개가 있는 풍경’은 허 작가의 유년기~성장기 18년의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를 펼쳐놓은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1950, 1960년대의 부산, 그것도 서구 동대신동, 보수천, 서부극장, 골목길 등이 무대의 주요 배경들이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

절, 알 수 없는 미래에 가슴 뛰던 성장기, 꿈과 순수가 있었던 그 무지개빛 풍경을 마치 연필로 그린 세밀화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런 만큼 꾸밈이 없고 진정성이 절절하다.

굳이 경남중·고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를 공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작가의 기억들이 나의 기억들로 환생할 것 같다. 작가는 ‘나의 기억이 너의 기억이 된다’고 했다.

작가는 머리말에서 “나의 어릴 적 기억들을 더듬어서 점과 점을 잇고 줄과 줄을 엮고 면을 넓혀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했다. 유년기, 소년기, 성장기 I, 성장기 II 네 성장 구간을 나누어 기억의 편린 53개 하나하나에 주제를 담아 이야기를 꾸몄다.

이야기는 ‘최초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주인공은 기어 다니던 때를 기억한다. 조그만 사고 때문에 기억한다. 기어 다니다 계단에서 구르던 도중에 이웃의 누나가 붙들고 안아주던 장면이다. 슬하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의 방에 들어와 체험으로 인식하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서술했다.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알을 깨다’이다. 고교 졸업 후 대입시에 낙방한 주인공이 한 친구와 흥등가를 찾은 경험으로 풀어간다. 성장기의 종언으로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아픔이었으며, 알을 깨는 아픔이자 내일에 대한 암시라고 적었다. 운명적으로 맞닿은 새로운 세상은 지금까지의 순수과 무지개빛 풍경이 견뎌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자전소설을 타고하면서 “코로나19가 넓혀 준 시간의 지평 위에 자유의 날개를 달고 지난 시절 추억의 벽돌들을 하나하나 쌓아올려 ‘오두막집’ 한 채를 지었다. 과거의 추억들을 무지개를 사진으로 남기듯 글로써 묶었다”면서 “기억력을 확인하면서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글을 썼다. 그러다 보니 고해성사와 닮은 참회록이 되었지만 애써 성장기 소설이라 고집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소설집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전자책은 ‘무지개가 있는 풍경’은 7월 21일부터, ‘두 줄기의 강’은 8월 23일부터 구입할 수 있다. 10권 이상의 대량구매를 원하면 저자구매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연락처=허문준 010-5281-5963, 전채홍 010-3206-2916.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는 모교와 동문 사랑의 출발점”

출판 소식

“독서삼매 하다 보니 장편까지 손대”

허문준(22회) 동문이 밝힌 ‘일흔줄에 소설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계획’

만 67세가 된 2016년 11월, 먹고 살자고 하던 일에서 손을 뗐다. 한편으론 짐을 내려놓은 기분에 개운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공허감이 남아 있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문제에 부딪히자 선뜻 답을 구할 수 없어서 연말까지 해답을 구하기로 했다.

연말이 지난 2017년 초, 나는 ‘삶’이란 길을 택했는데 그것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다. 삶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죽음의 정체를 찾고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삶’의 도구 중에서 손쉬운 독서를 택했다. 독서란 학창시절 외에는 멀리 두고 있던 것이었기에 못다 한 숙제이기도 했다.

마침 독서를 많이 하던 친구로부터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크하르트 톨레)를 추천받아 읽고는 그 책에 빠져버렸다. 그 후로 교보문고를 비롯해 시중 서점을 두루 뒤적이며 책을 고르고 사고 읽었다. 그리고 독서에 함몰되어 3년간 270권을 탐독하였다. 한 권 한 권 정독을 하고 독후감을 쓰고 명문에 밑줄을 그었다. 독서회를 만들어 토론도 했다. 목적 없는 친구 모임을 피할 정도로 치열하게 독서삼매에 빠졌다.

그러던 중 독후감을 쓰던 손이 잡상을 메모하다가 에세이를 쓰고 시를 쓰고 단편소설을 썼다. 선배 한 분이 문학의 완성은 장편에 있다고 하여 ‘두 줄기의

강’이란 장편소설을 썼다. 그것을 단독방에 올렸다. 대부분 격려의 반응(비판은 없기 마련이지만)을 얻고서 뻔뻔한 얼굴이 되었다. 다시 어릴 적의 기억을 캐내어 ‘무지개가 있는 풍경’이란 자전소설을 써서 단독방에 올렸다.

선뜻 ‘무지개가 있는 풍경’을 출판의 전장에 앞장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와 같은 추억을 그리워하는 세대에 그 옛날 부산 동대신동의 모습과 생활을, 그리고 경남중고를 다니면서 울고 웃던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노년의 한 공간을 무지개를 찾는 그리움으로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연이어 ‘두 줄기의 강’을 출간했다. ‘무지개가 있는 풍경’이 자전소설이라면 ‘두 줄기의 강’은 본격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것은 재미있게 쓸 것이냐, 의미 있게 쓸 것이냐였다. 모든 문학 작품은 부분이든 전체든 모두가 삶의 얘기이듯이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두 줄기의 강으로 표현했지만 땅 위로 흐르는 강이 그것이라면 땅 밑으로 흐르는 강은 삶의 해석이다. 해석을 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속편을 따로 떼어 놓았다. 언젠가 얼굴을 내밀 날이 있을 것이다.

위의 작업과 병행해서 에세이도 꾸준히 써 둔 것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라고 말하는 허문준(22회) 동문.

이 70편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그냥 문혀두는 것이 아까운 것도 있어서 선별하고 탁마하여 언젠가는 여러분의 비평을 듣고 싶다.

나는 등단 작가가 아니다. 수많은 문학상 중에 수상한 적도 없고 작가 협회의 회원도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증받는 것보다 주위의 찬사에 만족한다. 무명 가수 중에도 가수보다 더 잘 부른다는 찬사도 있듯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삶이고 백아 앞에 종자기가 나타날 줄 누가 알겠는가.

이런 사이비 작가로 살면서 얻은 것은 어렵듯이 목적이 무언가 떠오른 것이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시간을 아껴가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일이라는 것!

“숲에서 참된 의식·창조적 영혼 찾길”

조일제(26회) 동문, ‘영미문학의 숲과...’ 출판

조일제(26회·부산대 명예교수) 동문이 저서 ‘영미문학의 숲과 창조적 자아’를 출판했다(동인출판사 간). 2019년 3월 정년퇴임한 조 동문



조일제(26회) 동문

은 퇴임 3년 전부터 준비했던 역작을 5년 만에 탈고하여 출판했다. 고회를 앞두고 삶의 큰 매듭을 지은 조 동문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저서는 연구대상 작가를 9명이나 선정, 뜻하지 않게 힘겨운 연구활동이 되었다. “작가들에 대해 수많은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읽고 점검하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혀 씨름해야 했다”고 한다.

이 책에서 다룬 작가는 영국문학에서 밀턴, 워즈워드, 하디, 로렌스, 핀드혼 등이며, 미국문학에서 호손, 소로, 프로스트, 칼렌바크 등이다. 조 동문은 이번 연구요지는 영국과 미국의 문학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했을 때 나무와 숲이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컸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나무와



‘영미문학의 숲과 창조적 자아’ 책 표지.

숲의 영향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 보았다고 말했다.

조 동문은 “산업화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에 따른 폐해에

대해 우려와 성찰이 목소리가 높다. 이런 관점에서 9명의 영미작가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주목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들은 나무와 숲이 인간과 못 동식물의 생명 보존과 지속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된 의식과 창조적 영혼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가를 꿰뚫고 있다”면서 “그들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무와 숲에 대한 뛰어난 감성과 영성은 우리 시대의 독자들이 꼭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동문은 부산대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기술의 흐름을 읽어라”

윤태성(33회) 동문, ‘과학기술은 어떻게...’ 출판

윤태성(33회·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동문이 ‘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란 책을 펴냈다. ‘기술의 미래와 시장을 예측하는 힘’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기술의 흐름을 읽어라’는 새로운 시대의 생각법을 제시하고 있다.

윤 동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범위를 생각하면 기술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대비하기란 무척 어렵다. 지금 알고 있는 지식도 금세 철 지난 버전이 되기 쉽다. 이런 시대라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체를 조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는 기술혁명 4단계를 ‘기술 창조’ ‘기술 진화’ ‘상품 개발’ ‘시장 확장’으로 구분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어느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서 어



윤태성(33회) 동문

려움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관점을 연마하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해도 미래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 2부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12개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차세대 통신, 차세대 전지,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을 기술혁명 4단계 관점으로 설명한다.

윤 동문은 “기술혁명 4단계는 미래를 앞서가는 관점이다. 기술이 일으키는 시장에 언제 올라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자”고 말한다.

윤 동문은 부산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부산대 대학원 석사, 동경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책 표지.

“동창회보 광고 게재, 용마의 자랑이자 자긍심입니다”

민을 만한 딜러 만나는 게 최고의 수집방법



양수성(46회)의
古서적을 찾아서 ⑥

최근 구매 3작품 중 2개 위작...딜러도 실수 가능
위작·진품 판단 능력 가지려면 많은 돈·시간 필요

고서점과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많은 고서와 미술품을 구매를 합니다. 개인에게 또는 동업자에게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경매가 있어 경매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직접 모았던, 아니면 선대부터 내려오던 작품의 판매를 위하여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고서도 그렇지만 예술작품들도 수많은 책과 미술품 중에 매매가 활발하게 되는 물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싸게 산 물건이 알고 보면 위작일 수도 있고 턱없이 비싼 가격에 샀을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반대급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싸게 산 물건이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샀는데 고가의 물건인 경우도 곧잘 보이기도 하지요.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볼까 합니다.

며칠 전 한 고미술상에서 연락이 와 그분의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군 김옥균과 일중 김충현 선생의 서예작품과 내고 박생광이라는 분의 한국화 작품 등을 보여 주시더군요.

고군 김옥균 선생은 철종 2년인 1851년에 태어나 1894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말의 급진개화파의 지도자로서 갑신정변(1884)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 개화사상 형성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씨도 아주 이름이 나 그의 서예 작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싸지 않은 가격에 거래가 되곤 합니다.

한 눈에 들어온 그의 작품은 품격이 넘치고 활달한 필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옥균 선생의 서예작품과 함께 찍힌 도장이 좋지 않아 아쉬웠지만 글씨로 평가를 하니 구매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중 김충현 선생은 1921년생으로 우리나라 현대 서예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문 전유물이었던 비문을 해방 이후 최

초로 한글로 쓴 서예가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구매한 서예작품은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라는 글로 임진왜란 때 천곡(泉谷) 송상현 동래부사의 글을 적은 것이었죠. 작품 수준이 일중 김충현 선생의 작품으로는 최고에 가까운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고 박생광 선생이 그린 구룡폭포의 모습을 화폭에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내고 박생광 선생은 1904년 진주출생의 한국화 작가로 전통회화의 현대화를 이룩한 작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백으로 담아낸 폭포그림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내고 박생광 선생의 구룡폭포 그림은 안면이 많은 그림이었죠. 약 20여년 전 필자의 아버지가 소장하시다 다른 컬렉터에게 판매한 작품이었기에 더욱 더 마음이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점의 작품을 가지고 저의 공간으로 돌아와서 밝은 조명의 벽에 걸고 다시 작품을 감상했는데, 사실 한 번 더 진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깝사, 일중 김충현 선생의 ‘戰死易假道難(전사이가도난)’이란 작품이 석판으로 찍어낸 복사본 형태의 작품이었던 것이었죠. 일반적인 복사와는 틀리게 석판은 실제 잉크를 사용했기에 일반인이 보기에는 먹으로 쓴 진품 같이 보이지만 저희 같은 딜러들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입을 해온 갤러리의 조명이 너무 어두웠고, 갤러리 대표의 안목을 믿었기에 글의 진가만을 확신하고 매입을 해왔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도 컸지요. 현장에서 확인을 잘 못한...

하지만 딜러라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딜러들은 특히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는 아니기에 갤러리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반품하러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시 그 갤러리 대표의 영인본인지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

는 기색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김옥균 선생의 작품을 걸어 놓고 그의 글을 감상했습니다. 한시를 적은 작품으로 한시를 적은 다음 ‘甲午年秋日於東京古筠子(갑오년추일어동경고균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1894년 가을의 어느 날 동경에서 김옥균이 쓰다’ 정도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글귀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요. 김옥균 선생이 1894년에 홍정우에게 암살되어 이후 조선으로 돌아와 시신도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는데, 가을이 아닌 봄인 3월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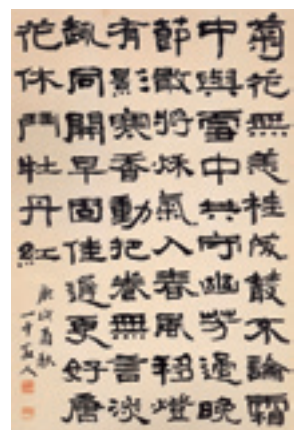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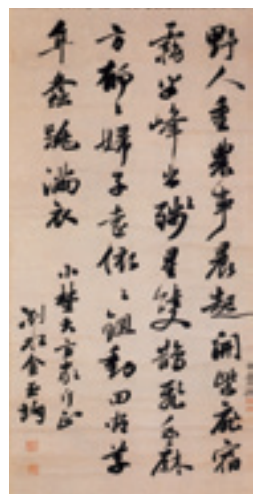
그럼 이 글도 가짜라는 결과입니다. 글씨는 밑에 원본을 복사한 작품을 대고 그 위에 한지를 대고하기에 한 작가의 서예작품에 있는 특별한 필체나 어순까지 따라할 수 있어 가짜 작품의 글도 원작품과 흡사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모조품을 만든 이는 김옥균이 1894년에 죽은 것까지만 알뿐 몇 월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가짜를 만들었을 확률이 아주 큼니다.

마지막으로 내고 박생광 선생의 작품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둘째 형님과 어머니에게 여주니 역시 옛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작품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박생광 선생은 폭포가 흘러내리는 부분은 먹을 전혀 쓰지 않고 물도 쓰지 않음으로써 여백으로 물을 표현하고, 나무와 괴석에만 먹의 농담과 색을 칠해 표현을 하는데 폭포의 흐름이 없지만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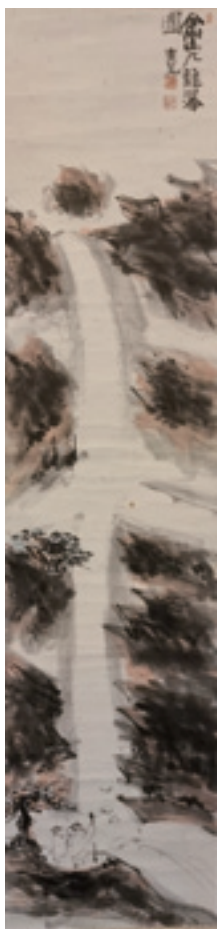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세 개의 작품 중에 하나의 작품만 마음에 흡족함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갤러리 대표에게 가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환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갤러리 대표가 사온 두 점의 서예작품은 몇 년 전 타계하신 또 다른 소장가에게 사왔기에 그냥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딜러인 저에게도, 그리고 작품을 수집하는 또는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서나 그림 등의 예술작품들을



고군 김옥균 선생(사진 위)과 일중 김충현 선생의 서예 작품(원고 내 용과는 무관함).



내고 박생광 선생이 그린 구룡폭포의 모습.

모으려 하는데 사실 좋은 취미이긴 하지만 진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에는 많은 경제적인 손해와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을 만한 딜러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수집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주관과 독단적인 애호의 방법은 가짜 또는 모자란 작품만을 수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하지만 가짜가 진짜로 대우를 받는다면 예술작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대는 수없이 많은 진짜와 가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능력이 키워진다면, 아니 능력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예술작품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사회를 판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읽은 진짜와 가짜에 대한 글을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진짜로 여겨지는 가짜 다 이아몬드가 수도 없이 많고, 반대로 알아주지 않는 진짜 다이아몬드 역시 수없이 많다.’ <끝>

경미회 스크린골프대회 성료...“더 친밀해져”

단체전 1위 사회공헌분과 개인전 1위 전삼록(41회) 동문 박종찬(25회) 고문, 명예회장배 시상금 스폰서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제 1회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가 지난 7월 3일(토) 오후 다대포 나이스골프존파크에서 열렸다. 6개방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이 각각 개최되었다. 단체전 6개팀 출전했다.

이 대회는 경미회 명예회장인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시상금 200만원을 출연하여 성사된 것이다. 이날 박고문과 김대욱 총동창회장, 현응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오후 2시 시작돼 7시 가까이 열전이 벌어졌다. 모든 경기가 종료된 후 인근 식당에서 시상식 겸 저녁 식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서 최영준(41회) 경미회 회장은 “처음 시도한 스크린골프대회이다.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로서 활성화 될 것이다. 뜻깊은 행사 계속 이어가자”면서 이 대회 개최가 가능토록 해준 박 명예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명예회장은 “참석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정도로 경미회를 사랑한다. 이 모임을 계기로 경미회가 더욱 단합하고 소통하고 만나서 총동창회 발전에 힘이 되어 달라”면서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스크린골프는 처음이다. 눈으로 보는 감각이 안 생겨 관심 밖이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모교사랑기금 모금운동에 경미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 용마골프회장은 “경미회 회원들을 사랑한다”면서 제3회 대회 때는 자

신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품추첨의 하이라이트는 이 용마골프회장이 찬조한 BMW 골프백 세트의 주인공을 가리는 것이었다. 경미회 막내기수 이욱한(55회) 동문이 행운을 안았다. 박 명예회장과 이 용마골프회장이 각각 숫자 1개씩을 뽑은 결과였다. 이날 경미회 전 회원에게 기념품, 출전선수 및 응원 참가자에게 골프공이 전해졌다. 이번 대회 시상 및 찬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상 내역(팔호 내 금액은 상금)=△단체전 1위(50만원)-사회공헌 △ 2위(30만원)-문화체육 △ 3위(20만원)-총동창회+집행부 연합팀 △개인 메달리스트 1위(30만원)-전삼

록(41회) △ 2위(10만원)-최영준(41회) △개인 신페리오 우승(30만원)-배준수(47회) △ 2위(10만원)-정재우(50회) △니어리스트(10만원)-최재혁(36회) △롱기스트(10만원)-이원준(53회) △최다출전상(10만원)-친목교류 △최다응원상(10만원)-미래발전 △격려상(10만원)-대외협력·이원준(53회·현장 격려상).

◇찬조내역(직책 생략)=박종찬(25회) 200만원(단체전·개인전 시상금 전액), 김대욱(29회) 50만원, 이종휘(32회) BMW골프백 1세트, 우영환 5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30만원, 최영준 50만원, 전삼록(이상 41회) 30만원, 박동식 20만원, 정용중(이상 42회) 이가한우상품권 30만원, 박형규(43회) 30만원, 윤상훈(44회) 골프공 35박스, 김상수(45회) 30만원, 권우일 10만원, 구자삼(이상 45회) 메로 4세트, 정신(47회) 30만원, 이충현(49회) 제과세트 10만원 상당. ◇현장 찬조=박종찬 10만원, 한수열 10만원.



경미회 제1회 명예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에서 개인 1위(사진 위)와 단체전 1위 시상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미회 막내기수 이욱한(55회) 동문(오른쪽)이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장(왼쪽)이 찬조한 BMW 골프백 세트에 당첨돼 기뻐하고 있다.



경미회 제3회 당구대회에서 우승한 친목교류분과 선수들.

“요즘 친목 도모엔 당구가 제격”

경미회 분과별 당구대회, 친목교류분과 우승

경미회 제3회 당구대회가 지난 6월 23일 오후 총동창회관 내 KN당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 2회 대회와 달리 분과별 대항전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 횟수가 가장 많았던 친목교류분과(신현식·51회, 김민수·52회, 박기홍·55회)가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친목교류분과는 예선전부터 발군의 실력을 발휘, 우승을 예감케 했다. 김민수 동문은 예선전에서

무려 31점을 올리는 등 기염을 토했다.

준우승은 예선전 4위로 결승전에 턱걸이 진출했던 총동창회+집행부 연합팀이 거머쥐며 이변을 일으켰다. 연합팀 결승진출에는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의 노련미와 관록당구가 큰 힘이 됐다. ‘노장은 살아 있다’는 말을 실증했다. 연합팀은 준우승 상금 20만원을 7월 3일 개최 예정인 경미회 스크린골

박종찬(25회) 고문, 경미회 단합대회 열어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의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에 대한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 경미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박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오후 용호동 W아파트 음식점에서 경미회 전·현 임원진을 초청, 단합

대회를 열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경미회 족구대회가 코로나19로 무산되자 위로 겸 화합과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일행은 식사 후 박 고문 자택에서 ‘위스키 뒤풀이’를 가졌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경미회 전·현 임원진을 초청, 단합대회를 가졌다.

프대회와 제4회 당구대회에 각각 10만원씩 찬조했다.

3위는 미래발전분과가 가져갔다. 사회공헌분과와 서든데스까지 가는 열전 끝에 신승하였다.

‘치맥 뒤풀이’서 대회 품평회 및 개선사항 등을 의논했다. 제4회 대회는 오는 9월 29일(수) 분과별(대표 선수 각

3명)로 열린다.

◇찬조내역=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30만원, 38회 동기회 10만원, 최영준(41회) 경미회 회장 30만원, 김영철(41회) 부회장 30만원, 한창희(41회) 부회장 30만원, 김대영(43회) 미래발전분과 부위원장 10만원, 권우일(45회)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10만원.

73회의 ‘보은장학금’...“스승의 은혜, 후배에게 갚아”

서울대 김호빈 동문, 경남고 후배 위해 100만원 기부
선배가 준 장학금, 조영탁 등 은사 가르침대로 나눔 실천

“스승으로부터 받은 은혜,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경남고 졸업 대학교 1학년생이 모교 후배들에게 ‘보은의 장학금’을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제73회 졸업생인 김호빈(서울대 기계공학과 재학) 동문이 지난 3월 30일 경남고에 뜻깊은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 동문은 2019학년도에 연세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 다시 수능시험을 보고 2020학년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인재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졸업한 학생이지만 김 동문을 모교 재직 조영탁 교사를 비롯, 몇몇 교사가 열성적으로 지도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김 동문은 조 교사의 지도와 사랑을 잊을 수 없었다. 조 교사는 김 동문의 입시지도와 자기소개서 및 면접 지도까지 그야말로 제자에 대한 ‘무한 사랑’을 베풀었다. 김 동문은 고3 재학 때의 추억도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 목표 성적에 도달했을 때, 선생님이 사주신 수능 관련 문제집이 입시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왔다. 조 교사는 지난 2019년 12월 부군 명의로



73회 졸업생 김호빈 동문(오른쪽)이 백영선 경남고 교장에게 후배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모교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 동문이 서울대 입학하니 서울대에 재직 중인 경남고 선배들이 김 동문에게 두둑한(?) 장학금을 선사했다. 김 동문은 이 중 일부를 스승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다.

김 동문의 장학금 기탁 사유 내용은 스승으로부터 받은 사랑대로 구체적이다. ‘고3 학생 5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하되, 가정형편을 고려하기보다 성실하고 열성적인 학생이 선정되면 더 보람스러운 것 같



조영탁 은사

다’고 밝혔다. 자신이 받은 사랑의 효과처럼 후배들도 이를 재현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김 동문은 “선생님(조 교사)은 늘 ‘나한테 받은 것은 졸업 후에 후배를 위한 멘토링활동이나 공부 나눔활동으로 갚아야 한다’며 은근히 교육 시켰다. 바르고 옳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기탁 사유서에 썼다. 김 동문은 지난 6월 14일자로 현역 입대, 나라를 지키는 중이다.

한편 이 소식을 알려온 박근태(39회·부산대 교수) 경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은 “어린 후배들까지 기부행렬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동문회, 나아가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나이의 품격’ 아는 우린 영원한 친구”

24회 집행부, 박종찬(25회) 고문 초청...‘마음의 빛’ 갚아
의리와 우정에 감성까지 겸비, ‘멋진 사나이’ 동기회 자부

24회 동기회가 지난 6월 23일 오후 자갈치 한 횡집에서 집행부 모임을 가지면서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을 초대했다. 임민호 24회 동기회장은 이 자리서 “올해 들어 첫 만남이다.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 같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 기쁘다”면서 박 고문 초청 연유를 설명했다.

임 회장은 “박 고문이 동창회관 건립과 동창회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면서 “존경하고 고맙고, 한편으론 미안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 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가 같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24회가 못한 것을 멋지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였다.

이처럼 전임 총동창회장이지만 후배 기수인 박 고문에 대한 헌사(獻詞)와 같은 이 발언은 파격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진심을 담았기에 오히려 감동이 있었다.

24회 기수는 총동창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23회(이병찬 고문)에서 건너뛰어 25회로 ‘바통’이 넘어갔다. 24회는 그동안 박 고문에게 ‘마음의 빛’을 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24회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의문은 금방 풀렸다.

이날 모임에서 각인된 단어가 ‘사나이’였다. 그것도 ‘멋진 사나이’이다. 24회 동기생들이 ‘진짜 사나이’이기 때문에 총동창회장직을 후배에게 넘겨서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그 결과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고마워 할 수 있었고, 또 이를 당사자에게 마음을 열어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의리와 우정을 아는 사내들이다.

박 고문은 이날 답사에서 “24회는 만나면 막강한 느낌이 든다. 건너뛰어 미안한 생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24회 선

배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24회는 살아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의 새로운 모교발전 기획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모임 경비 전액을 찬조한 박극제 동기(부산공동어시장 대표)는 “자주 못와 미안하다. 앞으로는 적극 참석하겠다. 명예 졸업이나 경남중고 이름을 달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동문의 동기회 편입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며 ‘친구 찬사’가 이어졌다.



24회 동기회 집행부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의 지난 노고를 치하하는 만찬의 자리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여철우, 박극제, 임민호(이상 24회), 박종찬(25회) 동문.

임 회장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나이가 친구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이다. 사나이 중의 사나이”라는 극찬이 나왔다. 임 회장은 “자갈치 오면 전화해라. 24회는 자갈치로!”라고 응답했다.

24회 동기회 모임에서는 ‘희미한 옛 사랑’에 얽힌 스토리가 빠지지 않는다. 학창시절 영도 지역의 미인 랭킹 1, 2위를 동기가 훗날 아내로 맞게 된 사연이다. 50년 전의 첫 사랑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울 줄 아는 고희의 사나이들. 24회 동문은 스스로를 “희미한 옛 사랑을 논할 줄 아는, 멋진 감성을 가진 사나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시절을 살다 간다. 멋진 동기생들이다”라고 했다.

“황금사자기 3승1패, 값진 경험”

경남고 야구부, 아쉬움 남긴 4강…훗날 기대

“아쉬웠지만 잘 싸웠다. 세 번의 승전가(勝戰歌)에 우리는 행복했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 출전한 경남고 야구부가 치른 경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

경남고는 이번 대회에서 3승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전국대회서 거둔 값진 3승이자 4강 진출이다. 지난 6월 초순 모교 후배 선수단의 이어지는 승전보에 동문들은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고, 코로나19의 갑갑함도 잠시 잊었다. 경남중고인이라면 느끼는 바로 “이맛(기분)이야” 하면서, 하지만 이번엔 3승까지가 한계였다. 결승전 진출은 역부족이었다.

많은 동문들이 안타까워하는 점은 이번 대회 우승팀 강릉고와, 4강전에서 경남고에 ‘쓴잔’을 안겨준 준우승팀 대구고를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명문고야구열전에서 경남고가 각각 제압했던 팀이라

는 것이다.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패권’의 가능성이 있으며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남고는 이번 대회에서 동산고에 5:1(6월 5일), 광주진흥고에 4:2(6월 9일), 세광고에 4:2(6월 11일) 승리와 대구고에 3:7(6월 12일) 패배를 기록했다.

한편 대구고와의 준결승전에서 재경동창회와 천신일(15회) 재경동창회 고문이 격려금을 경남고 야구부 전광렬(44회) 감독에게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지난 6월 1일 출전격려금을 모교에서 전달한 바 있다.

경남고, 청룡기 16강에 올라 코로나19로 경기 중단 사태

한편 경남고는 청룡기고교야구대회에 출전, 16강에 올라가 있다(8월 10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경기 일정이 중단된 상태이다.



청룡기야구대회 출전 격려금 전달식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총동창회, 청룡기 출전 모교 야구부에 격려금

총동창회는 지난 7월 2일 오후 제76회 청룡기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에게 격려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김대욱 총동창회장과 현응열(이상 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은 경남고를 방문, 백영선 교장, 조민형 교감, 전광렬

(44회) 야구부 감독을 만나 선수단의 선전을 당부했다.

이 자리서 백 교장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간략한 학교 현황을 설명했으며, 조 교감은 모교 야구장 야간조명 시설 보수에 대한 지원을 총동창회에 요청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김주완 투수, 미래 기약한 눈부신 투구

국가대표에 선발

경남고 야구부 김주완(투수·좌완·3학년) 선수가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발군의 기량으로 프로야구계의 주목을 끌었다. 김 선수는 지난 6월 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벌어진 경남고와 광주진흥고와의 16강전에서 정상급 투구로 KBO리그 스카우트들의 눈을 붙



경남고 야구부 김주완 투수(3학년).

들어 땀다.

김 선수는 이날 최고 145km, 140km 초·중반의 패스트볼과 커터, 슬라이더와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선보이며 진흥고 타선을 거의 완벽하게 틀어박았다. 제구력을 갖춘 변화구에 탈삼진이 속출했고, 완급 조절 등 경기 운영 능력까지 뛰어났다.

김 선수는 7회 1사까지 투구 수가 70개밖에 안 났을 정도로 제구와 운영 모두 절정이었다. 9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 선수는 이날 8⅓이닝 102구를 던지며 4피안타 무4사구 2실점의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한편 김 선수는 오는 9월 10~19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다.



52회 동기회가 경남고 야구부 하계 훈련복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광렬 야구부 감독, 김민철(52회 동기회 부회장) 허근영(“ ”) 동문, 백영선 경남고 교장, 김현진(52회 동기회장) 한중현(52회 동기회 야구감독) 김지운(“ ”) 동문.

경남고 야구부 하계 훈련복 후원 52회 동기회 “선배 공경, 후배 사랑 실천 기수”

52회 동기회는 지난 6월 18일 경남고를 방문, 야구부 하계 훈련복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지원한 훈련복은 지도자 및 선수용 총 55명분으로 금액으로는 1,144만원 상당이었다.

지난 2017년 덕형리기에 가입한 52회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에 이어 올해 약식이나마 리그가 재개되자 모교 야구부 후원을 논의, 이번엔 결실을 맺었다.

김현진 동기회장은 “총동창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동

기회 활동을 하고 있다.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52회가 되겠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의기투합한 동기생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번 52회 동기회 후원에서 허근영(오각스포츠·스포츠의류 유통 제조) 동문이 큰 힘이 되었고, 한중현(CL TOUR·여행업) 김지운(GA KOREA·보험업) 김민철(세강메탈·비철금속 유통제조) 김민수(디파츠·직수입차) 동문 등이 힘을 보탰다.

총동창회, ‘모교 홍보용’ 마스크 모교에 기증

총동창회는 모교 홍보용 마스크(사진) 3,000장을 특별주문 제작, 이중 2,200장을

모교에 전달했다. 재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사용할 분량으로 경남중 1,000장, 경남



총동창회는 모교 홍보용 마스크를 특별주문 제작해 경남중(사진①)과 경남고(사진②)에 전달했다. 사진③은 마스크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고 1,200장이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오후 현응열(29회) 사무총장과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양교를 방문, 양교 교장에게 각각 전달했다. 마스크는

최고급(구리사함유 원단) 워셔블 제품이다. 제작을 맡은 김형권(37회) 동문은 여름방학 전에 전달되도록 비상작업을 했다는 후문이다.

모교소식

경남고 줄잇는 동문 선배 장학금 기탁

엄종원(16회) 동문 올해도 500만원 기부

경남고에 동문 선배들의 후배사랑 장학금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대생 김호빈(73회) 동문의 100만원 기탁(관련기사 16면 게재)에 이어 최근 엄종원(16회) 동문이 모교 교장실을 방문, 백영선 교장에게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엄 동문은 지난해에도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엄 동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실히 공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 10명을 선발, 학



엄종원(16회) 동문

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엄 동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승원조경 주식회사, 한수기공 주식회사, 주식회사 D.P.M., (주)에스테크널리지 등에서 우수 야구부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부산과학전람회 장려상부산학생과학탐구올림픽 동상

경남고에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각종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월 9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제58회 부산과학전람회에서 문창인, 오해수, 박정주(이상 2학년) 학생 등이 생물부문 장려상을 수상(사진)하였고, 제28회 부산학생과학탐구올림픽(자유과학탐구대회)에서 문창인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이들 수상자는 평소 과학 분야에 관심

이 많고 교내 과학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다.



경남고 '동문 선배 초청 진로·진학의 날 행사'에 참가한 강사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 선배 초청 진로·진학 상담 행사

동문 13명 강사로...후배들에 배지 달아주기도

경남고는 지난 7월 7일 오후 교내에서 '동문 선배 초청 진로·진학의 날 행사'를 가졌다. 예년에는 개교 기념식 날 치러오던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19로 늦췄다. 각 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 선배들의 전문분야별 특강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했다. 각자가 원하는 분야를 신청토록 하여 강의 내용에 따라 참석학생의 수가 차이 나기도 했다. 강의 시작 전 백영선 교장은 감사의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3명의 동문이 강사로 참가,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정수'와 관련 정보들을 전해 주었다. 강사

들은 각자 나름대로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대개 USB에 강의 내용을 담아왔고, 학교도 이용 시설준비가 완벽했다. 특히 강의 중 폭우가 쏟아지고 뇌성벼락이 치는 등 굵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은 1시간 30분여 동안 열성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학생들에게 모교 배지 달아주기 이벤트를 기획했다. 현웅열(29회) 사무총장과 강사들이 각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배지를 달아주며, 경남중고인(人)으로 자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 강사와 강의분야는 표물과 같다.

7월 7일 경남고 진로지도 강사 (13:30~15:20)

성명(기수)	근무처	강의분야
박종기(28회)	(주)프로마르스 대표이사	기업 경영관리
안청홍(29회)	세호T.L.S(주) 대표이사	운송 & 물류
김재철(30회)	전)부산MBC보도국본부장 전)부산교통방송본부장	방송 & PD
김현태(30회)	(주)상명무역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해외무역
김법영(33회)	김&정 해운대병원 대표원장	의학
류장근(33회)	동주대학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보건 행정학

경남중, 생필품 키트 배송 “함께 나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등 112명 가정 전달

경남중은 최근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생 가정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필품 긴급 지원 키트(용품 세트)를 만들어 대상 학생 가정에 전달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생필품 키트는 위생용품(보건용 마스크, 휴대용 손세정제, 세정 물티슈 등)과 생필품(컵밥, 라면, 비빔면, 레토르트 식품, 김, 참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생 112

명(자가격리자 포함)의 가정에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였다. 경남중은 지난해에도 봄, 가을 2회에 걸쳐 생필품 지원 키트 배송 행사를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경남중은 키트 배송 시행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 필요한 지원 물품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다.

김미정 교장은 “경남중학교는 복지중점학교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복지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중은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생 가정에 생필품 긴급 지원 키트를 전달하였다. 완성된 키트(사진 위)와 키트에 지원 물품을 담는 모습.

경남중 학생·교사 수상 소식 잇달아

경남중 학생과 교사들이 각종 대회에서 수상, 학교의 명예를 높였다. 부산서부교육지원청 주최 2021 참소리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수상을 했다. 포스터 부문에서 김병민(3학년) 군이 우수상(제목: ‘바뀌어서는 안될’)을, 청렴송 부문에서 교사팀 ‘항상’(차상민, 이해정)이 우수상(제목: ‘부산사람청렴사랑’)을, 웹툰 부문에서 양

혜진 교사가 장려상(제목: ‘청렴마라톤, 우리 함께 완주해 봐요’)을 각각 수상했다.

또 2021 대한민국학생창의력캠페인 부산예선대회에서는 3학년 김병민, 노수민, 박영환, 서광재, 류채윤 등으로 구성된 '인싸'팀이 중등부 금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차지했다. 오승현 교사가 지도교사로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경남중, 교육환경 개선 각종 사업비 확보

경남중은 최근 각종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서구청으로부터 각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름방학에서 2학기까지 시행될 이번 사업 중 교육청 지원 공모에 선정

된 것은 △경비실 설치(1천만원) △복지실 개선(1천만원) △운동장 친환경인조잔디 조성(4억451만원) △학교공간혁신(8실, 4억원) 등이며, 서구청 지원은 학생안전통학로 조성(1억5천만원)이다.

성명(기수)	근무처	강의분야
박근태(39회)	부산대학 나노과학기술대 나노에너지공학과교수	나노에너지공학
전삼록(41회)	(주)그린ID 대표이사	실내 건축 & 인테리어
양수성(46회)	고서점 대표	문화기획 & 고서 딜러
최진영(49회)	신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업 (세무)회계학
정유석(51회)	(주)메디올포 대표이사	의용공학
김현진(52회)	국방과학연구소선임연구원	국방과학
정상중(52회)	동서대학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컴퓨터 정보통신

동기화·동호회 및 직능단체

17회 산악회 = 수정산, 엄광산 언저리



지난 7월 25일 (일) 수정산, 엄광산 언저리에 있는 샘을 찾아갔다. 오전 10시에 부산진에 모여 마을버스로 중북도로까지 이동. 간혹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습하고 무더운 날씨였다. 이번 여름 산행 중 제일 땀을 많이

흘렸다. 수정산 중턱에 올라 장수천, 만수천, 아래 봉수천, 구봉산 허리 꽃동산 샘터를 지나, 물맛이 좋은 옥천, 엄광산 중턱에 자리한 석탑 샘터를 지나 물이 마른 백동천을 지나고 내원정사를 지나 꽃동네에 도착했다. 무더운 날씨에 땀도 흠뻑 흘리고, 정구지 부침에 할매 시래기국, 시원한 맥주로 무더위를 날렸다.

한편 지난 7월 11일(일)에는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를 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폭염 대비 가벼운 산행을 했다. 참석자 : 김길호 박인사 송유근 오태식 이진우

19회 재경산악회 = 관악산 산행



지난 7월 18일(일) 관악산림욕장~관악능선~관악철봉~관악산둘레길(과천구간)에서 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거리 5.9km, 산행시간 3시간 17분 소요.

참석자 : 문찬 인선 종선 상만 경래 정덕 철원 상택 순창

28산우회 = 금정산 종주, 달음산 산행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지난 7월 11일 여름맞이 체력단련 차원에서 나이에 비해 다소 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금정산 종주를 감행했다. 오전 9시30분 금강공원을 들머리로 출발해서 동문→북문→고당봉에 올랐다가 범어사로 하산하는 15km 산행이었다. 한 명의 낙오 없이 무사히 귀환했다. 하산 후 차가운 생맥주와 뜨거운 톳탕 튀김으로 초복을 넘겼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최연옥 허남식 정복년(산행가이드) 강혜숙(28테니스회 코치)

한편 28산우회는 지난 6월 13일 좌천 달음산과 월음산을 올랐다. 하산 후 중식을 마치고 일광 해변의 카페에 들려 이인재 산우의 색소폰 연주를 겸한 뒤풀이를

26회 동기회, 내년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



총동창회관 방문 사진촬영

모교 개교 80주년인 2022년도에 졸업 50주년을 맞는 26회 동기회는 홈커밍데이 행사 일환으로 기념문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기념문집에는 동기생 모두 제 각각의 모습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7월 26일 26회 동기생 다수가 총동창회관을 방문, 회관을 배경으로 하여 사진을 찍었다(사진). 총동창회는 방문 동문에게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즐겼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조영제 최연옥 허남식 정복년(산행가이드) 강혜숙(28테니스코치) 박종기 동기회장 부부(뒤풀이) 전학명(울산)

28기우회 = 6월 월례회



28기우회(회장 김부운)는 지난해 시도로 호응이 좋았던 여성 기사(棋士) 초청 경기를 지난 7월 3일 오후 3시부터 서면 부전기원에서 개최했다. 28기우회원 8명과 부산 여성기후회원 4명 등 12명을 급수에 따라 1~3급 A조, 4급 B조, 5~6급 C조 등 3개 조로 나누어 풀리그로 진행했다. A조에서는 이관선(1급), B조에서는 김정유(4급), C조에서는 박임철(5급) 동기가 우승해서 시상금을 받았다.

참석자 : 김부운 김용섭 김정유 박임철 양동욱 이관선 이승준 전학명(28기우회) 김종란 김향희 문출림 이소운(부산여성기우회)

33산우회 = 금정산 파리봉 산행



33산우회는 지난 7월 11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금정산 파리봉 산행을 다녀왔다.

36회 울산동기회 = 2021년 첫 정례회

36회 울산동기회(회장 박성만)는 지난 7월 5일(월) 오후 6시30분 울산 남구 신정동 대통물회&횃집에서 2021년 첫 정례회를 가졌다. 1년6개월 만의 공식모임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회장-총무 등 현행 2인 집행부 체제에서 내년부터 회장만 유지하기로 하고, 차기회장은 현 회장이 지명하기로 했다. 1차 모임 경비 전액은

덕형리그, 총동창회에 마스크 기증

덕형리그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코로나19 극복과 동문 건강 기원을 담아 총동창회에 마스크 300장을 기증했다(사진). 이문열(29회) 덕형리그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축소됐지만 덕형리그가 개막된 것을 자축하고, 총동창회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덕형리그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입, 리그 참가 각 팀에게 150장씩 배분했다.



이원석 동문이, 2차 뒤풀이 비용은 정윤희 동문이 각각 쾌척했다.

참석자 : 강태원 박성만 박철중 심왕보 이원석 정윤희 제갈재환

51회 동기회 = 3대 회장단 이취임식



51회 동기회는 지난 6월 17일(목) 오후 6시 회장·이취임식을 용당 지리산 흙돼지(이정우 동기 모친 운영)에서 가졌다.

〈기사 20면에 넘김〉

〈기사 19면에서 받음〉

4인의 임원단만 모여서 간단히 진행했다. 고생 많았던 구민석 전임회장에게 감사패를, 신임회장에게 동기회 깃발을 전달했다.

참석자 : 구민석 박보순 신현식 최우영

52회 산악회 = 술레자 2021년 2회 정기산행



지난 5월 29일(토) 범어사에서 출발하여 금정산 정상 고당봉을 찍고 금정산성으로 하산하여 기장집에서 흑염소 불고기와 닭백숙으로 식사 후 산행을 마무리했다. 7월 말 예정이었던 3회 정기산행은

코로나19로 9월로 연기했다.

55회 동기회 = 52,53,54회 선배와의 만남



지난 7월 6일(화) 2021년 55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52회 기수가 53회, 54회 기수와 함께 즐거운 자리를 준비해 주었다. 52회 김지운(1차 계산), 한중현(2차 계산) 동문의 후배 사랑이 돋보였다.

참석자 : (백신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 김지운 한중현(52회) 김권우 이원준 우재준(53회) 조중완 정준섭 김영빈 고지현(54회) 장지훈 박기홍 이동주 이육한(5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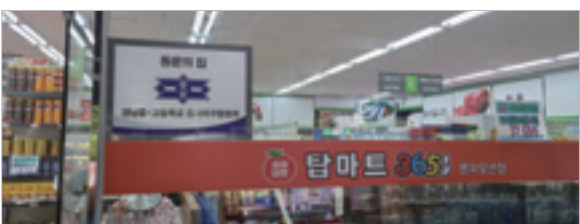
백기현(39회) 동문, 송정에 오백어묵 확장오픈



총동창회 일반위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백기현(39회) 동문이 동래구 사직동에서 운영하던 초량본가어묵을 해운대구 송정동 광어골로 16에서 '오백어묵'(오감을 100% 만족시켜준다는 의미)으로 지난 7월 23일 확장 오픈하였다.

김성준(44회) 동문, 탑마트오션시티점 개업

강서지구동창회 사무차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준(44회) 동문이 지난 7월 20일 강서구 명지동에서 탑마트오션시티점을 개업했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한편 55회 동기회는 지난 6월 14일(월) 오후 총동창회관 1층 우미옥에서 20주년 홈커밍데이 준비를 위한 임원진 회의를 개최했다. 1차 저녁식사는 박신현 수석부회장이, 2차 맥주는 장지훈 회장이 찬조했다. 김태현(동국제약 팀장) 동기가 참석 친구들에게 칫솔·치약을 선물했다.

참석자 : 장지훈(동기회장) 박신현(수석부회장) 김태현 이동주 이영훈 최범준(부회장) 이육한(사무국장)

용마산악회 집행부 임원, 장산 산행

용마산악회 집행부 임원들은 지난 6월 13일 13회, 33회, 35회 산우회원 및 회원가족들과 함께 지난 3월 금정산 합동산행에 이어서 해운대 장산 합동산행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석권(35회) 수석부회장이 식대 전액을 찬조했다.

효창수산배 부산리틀야구대회 성료
정신(47회) 동문 기업 주최, 동문 찬조 채도

정신(47회) 동문이 대표로 있는 효창수산이 주최하는 제3회 효창수산배 부산리틀야구대회가 지난 7월 1~4일 기장 현대 드림볼 파크 리틀 야구장, 소프트볼 구장에서 열렸다. 정 동문은 현재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 활약 중이다. 결승전은 우천으로 7월 10일 오후에 개최됐다.

동창회의 각종 행사와 사업 등에 술선수범하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아마야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 동문에게 이번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동문 선후배들의 격려와 찬조가 쏟아졌다.

*찬조(동문만 소개·기수순)=박종찬(25회) 배병훈 우영환 임태영 한수열(이상 40회) 최영준(41회) 정용중(42회) 강병규(43회) 안병규 탁정환(이상 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이상 45회) 감기환(47회) 김정현(50회) 구민석(51회) 김지운(52회) 임길환 조중완(54회) 경야회 다이하드실버야구단.

오영은(6회) 동문·은사 '끝없는 사랑'
임종 며칠 전 총동창회 발전기금 100만원 전달

오영은(6회) 동문이자 은사(영어과목)가 지난 6월 7일 지병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아마도 이럴 것 같다. “비록 나는 저 세상으로 갈지라도 경남중고 모교와 동창회는 영원히 발전하길 기원한다. 저 세상에서도 빌겠다.”

오 동문·은사는 별세 보름여 전(5월 20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 발전기금 100만원씩을 각각 보내왔다. 병이 깊음을 알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모교와 동문을 위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더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020년 총동창회관 건립에도 연금 생활에서 아껴 모은 돈 100만원을 보내왔다. 참사랑

KN당구장 1주년...천같이 단장

총동창회관 2층 KN당구장(채현철 50회 동문·은영)이 최근 개업 1주년을 맞아 당구대 천같이 작업을 시행했다.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의 KN당구장은 많은 동문 고객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박종찬(25회) 고문, 후배와의 골프 이어가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후배와의 골프 이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8일(화) 경양회(경남중고 양산지역동창회) 박경수(31회) 회장과 구동주(38회) 윤상훈(44회) 동문을 김해 정산CC에 초대해 운동과 함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6일(일)에는 42회 신봉준 동기회장, 김영태 박동식 동기고문을 정산CC에 초대, 의미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고교동창 골프대회 예선전 탈락

‘2021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 하반기 예선전 대회에 출전한 용마골프회가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예선전에서 탈락했다. 지난 6월 23일 블루원 상주CC에서 치러진 예선전에서 용마골프회 선수단은 아쉽게 32강전 컷라인을 통과하지 못했다. 출전선수는 박광용(25회) 정홍원(36회) 정의석(44회) 동문이다.

동창회보 기고는
yongma2007@hanmail.net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 귀감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오 동문·은사는 1946년 안용백 교장 시절 6년제 경남중학에 입학했다. 1950년 경남중 5학년으로 6·25사변을 맞아 자원입대했다. 1954년 만기 전역 후 중등학교 준교사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경남중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아왔다. 이수중 교장으로 퇴임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요즘 어떻게?

〈17회〉

△오태식 = 장남 준석군 10월 11일(월) 오후 2시30분 더채플앳논현 6층 라포레홀에서 결혼. △최홍배 = 부친상. 6월 4일 아시아드 장례식장에서 발인.

〈20회〉

△양문규 = 지난 43년간 운영 양문규 치과의원 7월 3일(토) 폐업. △최성배 = 모친상. 7월 2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에서 발인.

〈23회〉

△하종기 = 법무사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직 중. 6월 29일(화)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발행 타의 모범 표창장 받음.

〈24회〉

△하 옥 = 빙부상. 6월 10일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성택 = 차녀 여진양 6월 19일(토) 낮 12시 명동 밀리오레호텔 18층 온즈드룸에서 결혼. △조영수 = 빙모상. 7월 12일 아시아드장례식장에서 발인.

〈26회〉

△박철홍 = 빙모상. 6월 1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정거돈 = 장남 신사동(신사역 3번출구)에 아너스티성형외과의원 개업.

〈27회〉

△김병호 = 빙모상. 6월 9일 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신용도 = 부친상. 7월 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최태룡 = 딸 유경양 7월 24일(토) 오후 2시30분 Valley Presbyterian Church에서 결혼.

〈28회〉

△정영주 = 빙모상. 7월 8일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순철 = 모친상. 7월 16일 부산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배명철 = 빙모상. 7월 14일 충남 새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9회〉

△이상진 = 모친상. 7월 2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성준(정란) = 부친상(빙부상). 6월 12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현를 = 부친상. 7월 6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병순 = 모친상. 6월 28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옥성 = 장남 규형군 7월 10일(토) 오후 1시 부산 벡스코 W 웨딩 단독홀에서 결혼. △김철규 = 장남 동현군 6월 12일(토) 오후 2시 더 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결혼. △박상국 = 모친상. 7월 13일 국립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성중 =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당선. △이경우 = 차녀 영주양 7월 17일(토) 오전 11시 노블발렌티 삼성 단독홀에서 결혼. △이상렬 = 빙모상. 7월 8일 울산 동강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성호 = 부친상. 6월 12일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필 = 모친상. 6월 3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영준 = 빙부상. 6월 10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

최윤성 = 빙모상. 7월 15일 서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하만권 = 빙모상. 7월 6일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박석두 = 장녀 희경양 6월 20일(일) 낮 12시30분 해운대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결혼. △박성용 = 딸 소윤양 5월 30일(일) 오후 2시 서울 더베일리하우스 삼성점에서 결혼. △심재현 = 빙모상. 6월 30일 남천동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안용모 = 부친상. 7월 18일 대신동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천장호 = 모친상. 7월 14일 대신동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3회〉

△오남진 = 대한민국 영화 최고권위 축제인 '대중상영화제'와 '영화의 날'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위촉. △원광우 = 아들 동혁군 8월 21일(토) 오후 1시 일산 CN 웨딩 미엘홀에서 결혼. △홍경기 = 빙모상. 7월 4일 영도 구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4회〉

△장진호 = 모친상. 5월 23일 영락공원에서 발인. △정원일 = 빙모상. 7월 10일 고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차영록 = 빙부상. 7월 7일 인창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6회〉

△김종호 = 빙부상. 6월 19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양호진 = 모친상. 7

부 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외택(5회) = 6월 25일 작고
△오영은(6회) = 6월 7일 작고
△김덕형(7회) = 7월 7일 작고
△허남수(9회) = 6월 18일 작고
△신운업(11회) = 4월 29일 작고
△이정명(13회) = 7월 21일 작고
△정홍신(13회) = 6월 16일 작고
△강호준(14회) = 7월 14일 작고
△정무경(17회) = 6월 3일 작고
△이대영(23회) = 6월 23일 작고
△박태룡(26회) = 6월 28일 작고
△권명보(27회) = 7월 14일 작고
△김성동(30회) = 6월 15일 작고
△장봉석(34회) = 5월 28일 작고

월 15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37회〉

△권기원 = 부친상. 5월 27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소수현 = 아들 7월 17일(토) 센텀 사이언스파크 웨딩홀에서 결혼.

〈39회〉

△김동현 = 부친상(고 김덕형·7회). 7월 9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52회〉

△김태현 = 부친상. 4월 6일 봉생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현준 = 빙모상. 7월 11일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재훈 = 모친상. 1월 7일 부산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허준영 = 부친상. 4월 11일 부산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동 정

천신일(15회) 동문, 명예 미술사학 박사학위



△천신일(15회) 동문이 지난 6월 23일 오후 명지대에서 명예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인 천 동문은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나라 고유의 석조유물을 수집 및 보존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문창진(25회) 동문, 그림 전시회 개최



△문창진(25회) 동문이 지난 7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트라운지에서 '숲의 진화展'을 가졌다.

제22대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한 문 동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박우상(32회) 동문, 두 번째 개인전



△박우상(32회) 동문이 지난 7월 7~13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18년 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박 동문은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와 회화 전공이다. 현재 A&A Eng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인화(35회) 동문,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장인화(35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동문이 지난 6월 29일 부경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인 장 동문은 2020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선임돼 올림픽 기간 일본 현지를 다녀왔다.

임성빈(38회) 동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복무하던 임성빈(38회) 동문이 지난 7월 5일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인 임 동문은 '정통 국세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동수(42회) 동문, 도지사 표창장 받아

△김동수(42회) 동문이 점장으로 재직 중인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최근 경남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테마파크 로봇랜드의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8



층 홍보관을 무상대여하고, 롯데백화점 앱과 게시판 등을 활용해 홍보 지원 등 지역 관광산업 상생활동에 앞장 섰다.

성운용(52회) 동문 제1회 적극 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



△성운용(52회) 동문은 서울 서초구청에 활주로형 횡단보도 전국 최초 도입의 적극 행정 유공으로 지난 3월 제1회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동창회보 광고
문의 환영

Tel. (051) 253-7788

202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총 2,110명〉 (2021. 7. 29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6회 최갑영 2022년
8회 장혁표 정금출 2022년
11회 김광석 2024년, 김옥실 이재진 2022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5회 윤상준 임영길 2022년

16회 문성환 2022년, 민신웅 2023년
18회 박기주 박석도 최재범 2022년,
홍우재 2024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극 2022년
25회 김상수 김연석 김용범 이성웅 2022년,
임창운 2051년
26회 이상원 2030년
28회 안풍 2022년, 하재근 2028년

29회 김인술 2022년, 황유명 2023년
30회 강석철 2030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전인수 2022년
38회 권두성 2029년, 정재형 2022년
40회 박훈재 2025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중현 2028년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53회 황종민 2023년
54회 엄도용 2024년, 이찬희 2022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4명)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6명)
김희수 박홍기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0명)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13명)
김종철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5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태배 노상석
박한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7명)
김봉길 김상식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희순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3명)
김기관 김 청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병철 윤일영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한동대

10회(29명)
강희운 김기호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정학
박재경 박철민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이계창
이근태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하영수

11회(49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유타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창곤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백금덕 서영호 서자윤 손봉길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성길 이재진
이중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창욱

12회(59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렬 김연보
김영수 김우성 김창우 김중련 김중일 김지희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운 박정운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계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엽태섭 오세정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인 이원우 이현달 이희동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곤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73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광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중의 김치득 김현규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택 박홍표 배대결 배정은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병한
이상문 이용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51명)
강주신 권 명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총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창홍 배중현 백태우
신기석 신준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현영 이효근
이훈일 장삼식 조광명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성웅 최충락 허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53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명훈 김옥규 김완식 김정길
김종태 김중환 김홍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 훈 백승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이상호
이의일 이정부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오 정석우 조규중 조영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하영수 하경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중덕 홍익찬 황중부

16회(62명)
강상관 강영주 강중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김광수 김광용 김두웅 김박일 김상효 김일규
김정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충길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종봉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안인환 엄종원
여성국 예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상남 이양근 이영재
이중철 이창원 임승언 정우광 정일성 조길우
조원재 주기민 채경일 최경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47명)
감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상천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홍식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신희규 심문섭
양성일 어윤대 오충환 윤성욱 윤수성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천용광 최성호 하영수 허진형

18회(61명)
갈영수 강덕용 강영호 강인섭 고병현 김경결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시관 김성건 김재창 김중근 김중철 김지호
류중우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종구 박준성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안창범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광희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조성재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19회(79명)
강동완 강재욱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인선 김재근 김정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홍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상만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용식 정원찬
정태을 조성환 조재운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최화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황태경
황태원

20회(48명)
강부덕 강석근 김두영 김성룡 김세준 김우홍
김원갑 김조동 김종민 김철영 김현원 김형오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준태 백관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정세현 정승창 조정철 조윤태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창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한

21회(82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봉논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부근 김상덕
김영삼 김유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인협
박일송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서정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중 오환부 오거돈 오태규 우성건
우종득 육화원 이문수 이상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 혁 임경범 임성철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학래 조현국 조호재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중 최점수 최종민 탁원령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22회(71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곽대홍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승규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정민
김진철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묘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운
유인조 유재락 윤동원 이민성 이윤제 이춘식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창현 조흥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화봉 하성일 하현성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병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23회(63명)
감인홍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곤
김정록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기흥 박영호 박재호 배준순 백창영 서승환
송영춘 송재섭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언극
안범두 안병을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일원 이정욱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75명)
강동우 강정홍 곽두희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박규제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손성호 손인수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임덕철 임민호 장민재 장세호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명근 정영석 정영호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동렬 최동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황성훈

25회(122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영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경학 김중국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노태호 문재인
박건수 박경립 박공용 박동건 박명우 박세철
박용영 박종기 박중찬 박진상 박홍기 배대관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성경출 손기찬 송동준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태석 이계섭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성웅 이승욱
이신화 이우석 이인구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홍성 임영대 임창은 장세훈 전성태
전영훈 정길영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재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경호 최병주 최재환 최자호
최차환 최태동 태명산 한준석 한현교 허만탁
허 태 황곤태

26회(79명)
강수남 강영녕 강의규 고석훈 구영호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채영 김태년 김택영
김 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재우 박재욱 박호대 백문현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동춘 심송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원 이상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우상
이재봉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욱 정영륜 정익고 정재영 정태현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수일 최희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황광수

27회(51명)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중욱 김진명 김학희 김호균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호택
변재국 서기룡 신원원 양태중 오봉인 윤석건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원호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천우태 최인성 최휴진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0명)

구영소 권기택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종기 박진화 배호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염보용 염재홍 염호성 오호석 옥상곤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흥오 임상규 임익성
임대덕 전선국 전진학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원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71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석윤 김 영 김영훈 김인솔 김재현 김정규
김정암 김중권 김중명 김철오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훈 박명섭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손영보
손태권 송경문 신현수 안정홍 양승룡 윤석희
윤 욱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정윤 이준환 이진욱 장현경
전장화 정 길 정성훈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영열 황맹곤 황유명

30회(74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유기 김재일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춘 도문성 박규완 박원호 박재택 박정국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서강태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교선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성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 욱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61명)

권해철 김기정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중호A 김형수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인정 박중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균
서수고 손영태 손은정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중수 오민일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병태 이승원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창호 최부영 최상웅 최인목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홍 구
홍성수

32회(33명)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류현희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우상 박원곤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송기수 신국선 신한국 양문성
오경명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33회(49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종인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립 송중현 신동천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창선 이등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황경원

34회(26명)

강승기 곽수균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태하
노인선 박철웅 옥재명 이강희 이상엽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28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류인수 류철인 박동렬 박창제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대섭 안중엽 안종일 오시영 윤종호
이복근 이성환 이원우 이종찬 이춘기 임주택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45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종백
김중오 김중일 김창일 김철원 박승근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성귀호
신용덕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록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지동섭 최재혁 한형식

37회(27명)

김기동 김성현 김영곤 김원범 김의렬 김중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재호 차기완 천웅찬 탁낙준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34명)

강금성 곽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신동훈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최후경 한민득

39회(43명)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종엽 김현진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해동 백기현 서은식 송영호 심왕섭 안영준
여동섭 유숙정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영수 이종욱 이준은 이철원

이태윤 장동수 장윤희 정순환 정연설 정용국
정우영 정진해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종기

40회(32명)

강창지 고승성 권병서 김근영 김중철 김창민
김춘강 김학수 나수민 문태영 박무성 박재현
박훈재 배병훈 서정민 손균효 심 철 안경진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강욱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한수열 황성수

41회(22명)

강석희 김범성 김신욱 김인수A 김정태 김형을
류지섭 박동규 박상환 박정의 백창봉 안광근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임병호 장운호 조재봉
최영준 한정호 허종윤 황정후

42회(16명)

강인호 고장석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43회(21명)

강병규 구명진 김대영 김대훈 김동현 김신현
김종식 김진수 김태형 김희경 문영찬 박경곤
송대성 이상현 이용상 이진배 장병철 정효범
최용석 최한림 허재원

44회(19명)

김동욱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형모
문형준 배봉건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승철 이창용 전광렬 조영호 조청현 탁정환
황인주

45회(43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태규 김현철 김현호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상현 이정일 정상희 정중훈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3명)

강남구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곤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신정일 안영기 오영훈 윤경한 윤성곤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14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성상용
손호준 오성진 이기문 이승택 정민호 정 신
정윤호

48회(8명)

권태현 김정훈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4명)

안형수 이충현 장민건 최진영

50회(4명)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최종빈

51회(15명)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김영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신석진 신혁휴
신현식 이건영 정진우

52회(31명)

강영철 강재식 구순모 김명종 김민수 김민철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문성환
박상현 박선중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심종배
양현승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세벽 이해곤
정길수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4명)

강덕천 광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상욱
문희규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16명)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엄도용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55회(8명)

권세호 박기홍 이욱한 이종원 이항림 장지훈
최범준 최성원

56회(1명) 손정현

58회(2명) 김현윤 정 혁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4명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경남중고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를 지난 해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 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훌 어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 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1 자료의 종류 :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동영상 자료 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3 보내주신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4 보내주실 곳 ●우편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이메일 : parkgyver2@naver.com

5 기간 : 2022년 2월까지

경남중고등학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박 종 찬



박종기(28회) 동문이 하덕 모(3회) 동문 자택을 방문 하여 함께 자리한 모습.

하덕모(3회) 동문, 동창회보에 감사의 말 전해와

하덕모(3회·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원 로동문이 자신의 출판 소식을 동창회보 제435호에 소상히 보도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하 동문은 92세 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희귀 자료를 집 대성한 국내 유일의 ‘식품미생물학 사 진’을 6년 만에 완성해 지난 봄 출간, 세 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 동문은 최근 전화상으로 “아는 분 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무 과분하게 셧다”면서 감사의 말을 건넸다.

필자는 지난 5월 29일 오후 모교80년 사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분당 정자동의

하 동문 자택을 방문했다. 하 동문은 부 인 김명숙 여사와 함께 고향 후배를 따 뜻이 맞아 주었다. 병원 검진을 다녀온 직후였지만, 하 동문은 3시간에 걸쳐 경 남공립중학 재학, 6·25전쟁, 일본 유학, 박사학위 취득, 귀국 후 직장생활과 대 학 강단에 봉직하던 일 등을 들뜬 기분 으로 회고해 주었다.

한 마디라도 더 들려주려고 애쓰던 모습이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부디 만 수무강하여 100수를 훌쩍 넘기기를 기 대해 본다.

〈글=박종기(28회) 편집위원〉

창호, 유리, 금속
전문회사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금속구조물 창호 전문건설사



가온테크



다원지엠



공장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557-2

TEL : 055-723-3565 / FAX : 055-802-8000

E-mail : gaontc6790@daum.net

51회 - 신 현 식 (H.P. 010-5179-9101)